아이파크, 광명뉴타운의 중심을 바로잡다
IPARK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031) 443-1957
7월 21일 오픈

문화매일신문

제1481호 2023 / 11 / 7 /Tue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 1899-9659

내일을 만드는 기회
기회를 만드는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윤석열 대통령, 세계 정상들과 AI·디지털 시대 규범 정립의 방향성 공유

11월 2일 'AI 안전성 정상회의'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명수 신임 합참의장 후보자, 박안수 신임 육군 참모총장, 양용모 신임 해군참모총장, 이영수 신임 공군참모총장, 손식 신임 지상작전사령관, 강신철 신임 한미 연합사 부사령관, 고창준 신임 육군 2작전사령관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에 수치를 수여했다.

삼정검은 군인들이 장군에 임명 될때 수여 받는 검으로 호국·통일·번영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수치에는 삼정검을 부여받은 이의 보직과 계급, 이름 그리고 대통령 이름이 새겨져 있다.

대통령은 군 수뇌부로 임명된 장군들의 삼정검에 직책을 명시한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달아주며 국가를 위해 더욱 헌신할 장군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이어진 환담에서 빈틈없는 군사대비태세를 당부하며 투철한 군인정신과 확고한 대적관 유지를 주문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장병 사기·복지 문제는 정부의 일관된 중점과제임을 강조하며, 특히 초급간부 및 부사관의 복무여건 개선에 보다 전향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이들의 노고에 합당한 경제적 보상 확대, 주거환경 개선과 인사관리제도 개선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전방위적인 조치들을 언급하고, 군 수뇌부에서 이러한 조치들을 초급간부 및 부사관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림과 동시에 부단한 현장 확인을 통해 실제 복무 여건이 제대로 개선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챙길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끝으로 우리 군을 무한히 신뢰하고 우리 국군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을 격려하며 환담을 마무리했다.

오늘 행사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대기 비서실장,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복두규 인사기획관,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최광수/기자

경북도, '지속 가능한 사과 다축과원 재배기술'경북이 주도한다!

경북농업기술원, 전국 최초 "사과 다축 재배 매뉴얼" 발간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증대, 기계화 등이 유리한 사과 다축재배 기술을 정립하여 경북 사과 생산구조 대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축 수형이란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하는 삼각 원뿔 모양(방추형)의 기존 수형과 달리, 하나의 대목에 2개 이상의 원줄기(축)을 수직으로 배치하여 재배하는 방법이다.

특히, 이탈리아와 뉴질랜드에서 많이 적용된 과일벽 형태의 2차원 평면형 수형으로 생산성이 높고 전정·적과·수확 등의 농작업이 편리하며 향후 기계화 전정과 로봇 수확까지 가능한 미래형 수형이다.

다축 수형으로 재배했을 시 생산성은 60% 이상 증가하고, 착색과 품질은 35% 향상되며, 노동시간이 22% 이상 절감되는 등 생산비가 41% 절감돼 경영비 절감 효과가 있다.

경상북도 사과 다축 재배면적은 1년 사이에 67% 증가할 만큼 농업인의 수요와 관심이 많지만, 최근까지 재배 기술이 정립되지 않아 재배 농가의 어려움이 컸다.

이에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다축 재배의 기술 정립과 안정 정착을 위해 1.현장기술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2.미래형 사과원 조성을 위한 2축, 다축 시범사업 3.농업현장 컨설팅을 위한 전문 기술자문단 운영 4.재배기술 보급을 위한 재배 매뉴얼 제작을 추진했다.

먼저, 시군 농촌지도사 16명을 대상으로 14회에 걸친 이론과 실습 교육을 통해 다축 재배 전문지도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2020년 전국 최초로 미래형 다축 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25개소를 보급했다.

또 다축 재배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사과연구소, 시군 농업기술센터, 선도 농가와 협력하여 사과 다축 재배 기술자문단을 구성해 병해충, 과원 조성, 수채 관리 등 150건의 맞춤형 컨설팅도 추진했다.

특히, 이번에 발간된 다축 재배 매뉴얼은 전국 최초의 다축재배 기술을 소개한 책자로 △다축 수형 개념 △다축 사과원 개원 방법 △재식 후 관리 방법 및 주의사항 △선도 농가 사례 등 사과 다축 재배를 위한 핵심기술을 수록했다.

사과 다축재배 1년 차인 박00 농가(청송군)는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의 현장 컨설팅으로 토양 관리부터 수형 구성까지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이번에 발간된 재배 매뉴얼의 재배 기술을 적용하면 고품질 사과 생산으로 소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영숙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은 "노동력 부족, 고령화 등으로 기존의 노동집약적 생산구조는 한계가 있다. 사과 산업의 틀을 바꾸는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다축 재배기술 보급과 현장 컨설팅, 다양한 지원 등을 통해 경북 사과 생산구조 대전환으로 사과 산업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서울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국제정세 급변 속 '수도 서울' 방호대책 점검

오 시장, 18일 '서울안보대화'서 서울의 빈틈없는 안보 역량, 확고한 준비태세 수립 의지 밝혀

서울시가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의 급변 속에서 지자체 최초로 전시 상황시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수도 서울의 방호대책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시는 수도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김규하 수방사령관을 비롯해 서울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안보정책자문단, 핵 및 방호분야 국내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본 서울시 핵·미사일 방호 발전방안」 포럼을 11월 2일 오후 2시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통한 現 안보 상황의 시사점을 공유하고 한반도 확장억제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과 수도 서울의 빈틈없는 방호태세를 위한 발전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10월 18일 국방부가 주최한 다자 안보 회의체 '2023 서울안보대화'(SDD)' 둘째날 영상축사를 통해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평화 유지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연대를 강조하면서 수도 서울의 빈틈없는 안보 역량과 확고한 준비태세 수립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날 포럼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현 확장억제 전략 평가와 향후 10년 전략적 선택,최근 현대전 양상을 고려한 도시형 방호체계 구축방안 등 총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또한, 발제자로 나선 정성장 박사(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와 이상민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방방호학과 겸임교수)의 주제 발표와 함께 김열수 박사(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를 좌장으로 핵 정책 옵션, 서울시 방호태세 진단 및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는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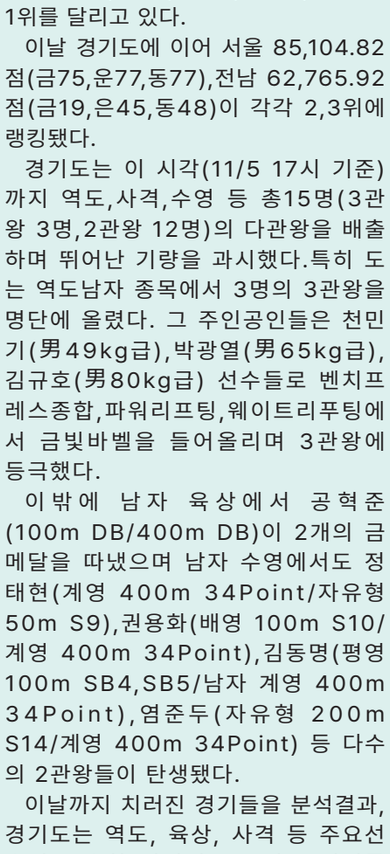
첫 번째 세션에서는 「현 확장억제 전략 평가와 향후 10년 전략적 선택」를 주제로 핵 확장 억제, 핵 공유 또는 전술핵 배치, 한·미 핵 협정 보완 등 다양한 핵 정책 방안이 공유됐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최근 현대전의 양상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는 드론, AI, 무인전술체계 등에 대한 현상과 위협을 먼저 살펴보고, 현실화된 핵·미사일 위협을 고려해 「서울시민 안전보장을 위한 핵·미사일 방호대책」을 주제로 유사시 경보전파, 대피소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포럼의 첫 시작부터 토론세션까지 끝까지 자리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포럼은 불과 38km 떨어진 곳에 휴전선이 있는 서울에서 혹시라도 테러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생길 수 있는 가공할 상황을 대비해 지자체 최초로 안보 토론회를 개최하고 점검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며, "천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지자체인 만큼 최근의 현대전에서 본 최첨단 과학기술이 가져온 무기체계의 변화, 안보상황의 변화를 계속해서 (안보 관련) 시리즈로 다뤄,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수도 서울의 방호태세를 더욱더 튼튼하게 지켜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경기도,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 대회 3일차 선두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목포종합경기장 등 38개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대회3일차인 5일(17시 기준) 총 득점 91,429.1점, 총 202개(금63, 은67, 동72)로 종합 1위를 달리고 있다.

이날 경기도에 이어 서울 85,104.82점(금75,운77,동77),전남 62,765.92점(금19,은45,동48)이 각각 2,3위에 랭킹됐다.

경기도는 이 시각(11/5 17시 기준)까지 역도,사격,수영 등 총15명(3관왕 3명,2관왕 12명)의 다관왕을 배출하며 뛰어난 기량을 과시했다.특히 도는 역도남자 종목에서 3명의 3관왕을 명단에 올렸다. 그 주인공인들은 천민기(男49kg급),박광열(男65kg급),김규호(男80kg급) 선수들로 벤치프레스종합,파워리프팅,웨이트리푸팅에서 금빛바벨을 들어올리며 3관왕에 등극했다.

이밖에 남자 육상에서 공혁준(100m DB/400m DB)이 2개의 금메달을 따냈으며 남자 수영에서도 정태현(계영 400m 34Point/자유형 50m S9),권용화(배영 100m S10/계영 400m 34Point),김동명(평영 100m SB4,SB5/남자 계영 400m 34Point),염준두(자유형 200m S14/계영 400m 34Point) 등 다수의 2관왕들이 탄생됐다.

이날까지 치러진 경기들을 분석결과, 경기도는 역도, 육상, 사격 등 주요선수의 우수한 경기력으로 각종 신기록 갱신,축구 등 단체 종목의 연이은 승리로 고득점의 발판을 마련했다.

김범상/기자

전남도, 11월 농촌융복합산업인에 이현미 대표

폐업 위기서 지역 과잉생산 고구마로 빵 개발…연매출 13억 대박

전라남도는 해남에서 생산한 고구마를 활용해 독창적인 지역 특화빵을 개발·판매하는 이현미 '원조 해남고구빵 피낭시에' 대표를 11월의 농촌융복합산업인으로 선정했다.

이현미 대표 부부는 2006년 서울에서 해남으로 귀촌해 제과 제빵점을 열었다. 매출 감소 등으로 폐업 위기가 있던 중 한 관광객이 '해남에서만 먹을 수 있는 빵 있어요?' 라는 물음에, 지역 특화상품을 개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대표는 특화빵을 개발하기 위해 고민하던 중 해남에서 품질 좋은 고구마가 과잉생산 때문에 가격 하락이 지속되는 문제점을 확인했다. 고구마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고구마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살린 쫀득한 식감의 고구마 빵, 고구마 타르트, 스콘 등 다양한 특화빵을 개발했다.

해남만의 지역 특화빵이 개발된 이후 각종 방송과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손님이 급격하게 늘었다.

이후 성장을 거듭하며 2022년 13억여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1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또 매년 약 10톤의 유기농 쌀과 해남 고구마 100톤을 사용하는 등 지역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업체로 성장했다.

원조 해남고구마빵 피낭시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처음으로 주최한 '농촌융복합산업 우수 외식업체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현미 대표는 앞으로도 지역 우수 농특산물을 활용한 신규 상품을 개발해 농가소득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강성일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이 대표는 해남 고구마의 대외 인지도 제고에 크게 기여하는 농촌융복합산업인"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통해 지역과 상생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가 확산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경북도의회 차주식 의원, "사립유치원 석면해체공사 지원 대책 마련해야"

경상북도의회 차주식 의원(경산, 국민의힘)이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유치원 석면 해체 현황'에 따르면 석면 해체공사 대상 사립유치원이 59개 원(원아수: 5,681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체 유치원 663개 원 중 무석면 유치원은 511개 원(77.1%)이며, 석면 보유 유치원은 공립 93개 원(14,923m²), 사립 59개 원(28,632m²)이다. 공립 유치원은 교육 예산으로 석면 해체공사를 추진하고 있어서 교육청의 석면 해체공사 계획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으나 문제는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없는 사립유치원이다.

석면 해체 대상 사립 유지원이 가장 많은 시군은 포항(15개원, 7,247m²), 구미(11개원5.668m²), 경산(10개 원, 5,632m²) 등 14개 시군에 59개(28,632m²) 사립유치원이 포함되어 있다.

차 의원에 따르면 "도내 전체 사립유치원 208개 원 중에서 59개(28%) 유치원이 석면 해체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군별로는 포항 15개 원(7,247m²), 구미 11개 원(5,668m²), 경산 10개 원(2,670m²)을 포함해 14개 시군에 분포되어 있어 유치원생의 미래 건강을 위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주식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지식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전한 보육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면서 "특히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그 유해성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이 '사유재산'이라는 관점에서 석면 해체공사 예산을 지원하지 못한다는 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원생들의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시설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지원이 어렵고 타 시도 또한 유사한 상황"이라면서 "향후 시도교육감협의회, 사립 유치원연합회, 교육부가 협조하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청도군의회 김규봉 의원, 전국시군구공무원 노조연맹으로부터 감사패 받아

직장 내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

청도군의회 김규봉 의원은 지난달 31일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지난 9월에 있었던 제294회 임시회에서 "청도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통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및 예방과 직원의 인격권을 보장함으로써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이는 시군구 연맹에 귀감이 되어 조합원들이 감사패를 수여했다.

김규봉 의원은 제9대 청도군의회 부의장으로 선출되어 지난해 7월부터 바쁘게 현장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청도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청도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도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도군 여성농업인 지원 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규봉 의원은 "의원으로서 군민에게 필요한 조례를 발의했을 뿐이며, 앞으로 직장 내 조직문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라며 겸손하게 소감을 밝혔다.

윤근수/기자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항만소방서, 119안전체험관,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1공구 현장 직접 살펴보다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정례회 기간 전에 주요 기관과 사업장을 방문 했다.

첫 방문지로 항만소방서 소방1정대에서 소방정 건조 진행사항을 보고받고 해상 관활 현황을 확인했으며, 이어서 항만소방서 주요 현황 등을 청취를 하고, 재난.사고현장에서 현장 대응에 고생하는 직원들의 격려도 아끼지 않았다

또한, 일상생활에서의 재난발생시 대처능력 향상과 다양한 재난유형을 경험할 수 있는 119안전체험관을 방문하여, 주요 현황 파악은 물론 작은 사고부터 대형재난에 대응까지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는 열정도 보였다

주요 사업장으로는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1공구 현장을 방문하여 지난 2월 발생한 토사붕괴 사고구간에 대한 지반보강 공사(그라우팅) 완료 상태를 확인하는 등 같은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관계자에게 안전에 대해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안재권 위원장은, "우리 시의회는 안전을 최일선에 책임지고 있는 소방이 제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응원과 지원을 하겠으며, 앞으로도 부산시의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현장중심의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김희태/기자

울산시의회 이장걸 위원, '울산광역시 시민사랑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구군 간 동일 대규모 재난 · 사고...차등없는 혜택 보장 필요

울산시의회 이장걸 의원(신정4동·옥동)은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구 · 군 간 차등없는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시민사랑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시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으로 울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들은 모두 대상자가 된다.

이번 조례안은 구 · 군을 안전보험 계약주체로 추가하고 구 · 군에 보험료 일부를 보조하여 납입할 수 있도록 주체범위를 확대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보험 중복가입 문제해소와 창구 일원화로 민원불편 감소를 위해 구 · 군 보조금 지원 방식으로 운영 예정이며, 자연재해 사망 등 8개 항목에서는 모든 구 · 군의 시민들이 같은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보호구역 내 65세이상 노인 교통사고 시 동구, 북구만 최대 1,5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었지만, 조례개정 후에는 5개 구 · 군이 최대 2,000만원이라는 동일한 금액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장걸 의원은 "현재는 구 · 군별로 가입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구 · 군별로 보장항목과 보험료가 다르다보니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되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본 조례안이 개정되면 대규모 재난 · 사고에서 구 · 군 간 차등 없는 혜택이 보장되어 구 · 군간 위화감 해소하고 시민 안전을 대변하는 시정 구현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제24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황규진/기자

이재숙 대구시의원, 복합혁신센터 부실시공 · 열악한 정주환경, 대구혁신도시 대책촉구

서면질문 통해 정주환경 만족도 전국 최하위 대구혁신도시 정주환경의 획기적 개선대책 마련 촉구

대구시의회 이재숙 의원(동구4)은 지난 11월 1일 서면질문을 통해 '대구복합혁신센터' 건립공사에서의 부실시공에 대한 대책과 함께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정주환경 만족도 조사에서 최하위로 나타난 대구혁신도시의 정주환경에 대해 대구시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서면질문에서 "대구시가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국비와 시비 등 282억원을 투자해 추진해 온 '대구복합혁신센터 건립공사'에서 부실시공이 발생해, 개관이 지연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혁신도시의 주민편의와 주민 교류 활성화도 함께 지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과 공공시설의 신뢰도가 크게 훼손됐다"며 부실시공으로 인한 주민불편 발생 등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한, 대구시가 직접 시행하는 공사에서 부실시공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그 상태로 준공처리까지 된 점을 지적하며, 그 경위와 재발방지 대책 등을 따져 묻고, 대구시 도시건설본부의 다른 공사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혁신도시의 정주환경에 대해서 대구혁신도시의 계획인구 달성비율이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8위 그치고 있고, 정주환경 만족도는 10위로 최하위인 점 등 대구혁신도시 사업의 저조한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를 제시하며 그 결과에 대한 홍준표 시장의 평가를 되물었다.

또 혁신도시 정주환경의 평가 중 만족도가 특히 낮았던 편의시설 부문과 보육 · 교육환경 부문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 질문하고, 혁신도시의 획기적인 정주환경 개선 정책의 마련과 혁신도시를 통해 각산동, 동호동, 율암동 등 인접한 노후 기성시가지의 개발 유도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이에 대한 대구시의 대책을 주문했다.

이재숙 의원은 "공공기관을 이전해 지역의 발전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 혁신도시조성의 핵심 목적이었지만,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혁신도시 성과의 총체적 부진을 진단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의 혁신을 유도하고 증폭시켜 나가야 하는 국가정책이자 침체한 대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공공기관 중심의 혁신사업인 만큼 말 그대로 '혁신적인 정주여건의 조성'과 '혁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해 홍준표 대구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끊임없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질문을 마무리했다.

윤근수/기자

충남도의회, 충남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제도 논의

연구모임 3차 회의 열고 충남 벤처기업 육성·지원 위한 조례 발의안 검토

충남도의회 '충남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은 6일 충남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연구모임 3차 회의를 열고 벤처기업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충남도 펀드 운영의 방향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충남도의원, 교수, 전문가 16명이 참석했으며, 충남의 특성에 맞는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모임은 또한 지난 10월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충남도로 이관된 펀드 운영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회원들은 내실 있는 중장기 투자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인 투자 대상기업 발굴과 모니터링, 지역 재투자 유도를 통해 도 벤처투자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윤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액은 4조 4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2%나 감소할 정도로 크게 위축됐다"며 "고금리·고물가와 더불어 전쟁 등 대내외적으로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도 충남 벤처기업들에게 맞는 현실적 대안을 도출하고, 조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도가 직접 운영하게 된 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정근/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 :최재은. 부회장: 임석경 청소년책임보호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제호 : 문화매일신문
등록번호 : 서울 가 50146 | 등록일 :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광고국:1899.9659
정 치 부:내선 (112) 문 화 부 :내선 (116)
사 회 부:내선 (113) 부동산부 :내선 (117)
경 제 부:내선 (114) 오피니언부 :내선 (118)
스포츠부:내선 (115) 지 방 부 :내선 (119)
서울특별시 개봉로 12길 9-19 로얄홈타운 102동 202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산소카페 청송군

'진짜 청송군민의 군수'가 일궈낸,

대한민국 대표 청송사과 축제 대형홈런 날리며 성료

홈런왕 제조기 **윤경희 청송군수**의 사과축제! 또다시 장외 대형홈런을 날리다!
지난 5일간, 누적관광객 42만 여명이 축제장을 찾아 지역경제 활성화 이뤄내

윤경희 청송군수!

그를 보노라면 도대체 어디까지가 그의 한계일지 가늠할수 없을 정도로 늘상 깨어있는 진취적 사고로 산소카페 청송군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고의 지방자치단체로 만들어 가고 있다.

우리가 훤히, 야구 용어로 안타 제조기란 말을 쓰는데, 작금의 윤경희 군수는 안타 제조기가 무색할 정도로 홈런왕 제조기라 불러도 그 누구하나 이이제기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는 무슨 일이든 추진하기만 하면 그야말로 대방 성공을 이끌어 내, 오늘날 산소카페 청송군을 부자 청송군으로 만들어 가고 있어 인접 타시·군으로부터 큰 부러움을 사고 있다.

이런 그의 노력은 **'청송사과, 찬란한 금빛 향연 축제'**란 주제로 지난 11월 1일(수)부터 11월 5일(일)까지 5일간, 청송읍 용전천(현비암 앞)일대에서 개최된 '제17회 청송사과축제'는 첫날인 1일(수), 화려한 개막을 올린후, 매일 약 10만 여명의 관광객들의 발길이 줄줄이 이어져 누적관광객 42만 여명이 이곳 축제장을 찾아 청송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톡톡히 보여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축제' 다운 진면목을 확실히 과시하고 대박 성공을 거두며, 지난 5일, 저녁 손태진가수 축제 무대에 이어 청송 용전천 현비암 앞 하늘을 화려한 불꽃놀이가 수를 놓으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잘알다시피, 청송사과는 11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수상의 관록에서 벌써 그 우수성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힘차게 그 명성을 떨치고 있는 가운데 펼쳐진 이번 제17회 청송사과축제는 축제장에 구름인파가 몰려 축제는 활기를 띄었고, 각종 체험 홍보 부스, 사과판매 부스, 식당 등 축제장을 비롯한 인접 읍·면 음식점 집집마다 문전성시를 이뤄, 지역 소득 창출과 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차고도 넘쳐 났음을 눈으로 톡톡히 확인할 수 있는 축제였다.

이는 청송군이 축제 준비부터 축제 마지막 성료시까지 윤경희 청송군수를 비롯한 600여명의 공직자와 청송군민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뜻을 모아 이뤄낸 결과였다.

또한, 이번 청송사과축제는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온라인 축제를 병행, 방문자수 40만 여명, 참여자수 17만 명을 기록하는 등 온라인 축제에서도 괄목할 만한 대성공을 거둔 축제로 대한민국 축제사상 최고의 축제의 진면목을 여과없이 보여준 대박축제였다.

청송군과 청송군축제추진위원회가 추진한 이번 청송사과축제는 예전과 달리 축제 프로그램 준비 컨셉부터 남달랐다. ▲축제 주제(소재)와 부합된 핵심프로그램인 **「대표 프로그램」**과 ▲축제의 특성과 문화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인 **「기타 주제 프로그램」** ▲**「방문객 참여 체험프로그램」** ▲**「타 축제와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추진됐다.

특히, 청송사과축제의 대표 프로그램 중 하나인 **'청송꽃줄엮기 전국 경연대회'**에는 청송군 관내 8개 팀과 그 외 전국 7개 팀, 총 15개 팀이 참가하여 풍성한 볼거리를 만들어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었고, 개군 600주년을 기념한 청송도호부사 퍼레이드와 청송사과 퍼레이드 그리고 풍물경연대회 등은 8개 읍면 주민 화합의 장은 물론,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눈요깃거리로 큰 각광을 받았다.

아울러, 청송사과축제와 함께 펼쳐진 청송황금사과배 전국고교장사씨름대회는 스포츠 열기로 후끈 달아 오르게 만들었으며, 이외, 내고장 청송 알기 퀴즈대회, 청송낙동정맥등반대회 등 다채로운 연계행사를 통해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 냈으며, 청송사과, 사과요리, 사과가공품 등을 전시 판매한 210평 규모의 사과홍보관을 비롯한 258개동의 부스에서 다채로운 체험과 색다른 경험을 선물해 관광객들로부터 뜨거운 호평을 이끌어 냈다.

그러다보니, 엄청난 관광객들이 이곳 청송 축제장과 주왕산, 청송군 전지역의 별미 음식점들에 엄청난 구름인파가 차고 넘쳐 경제 수익효과는 감히 상상할 수 조차 없는 취재진이 대충 판단해도 1인당 2~3만원만 써도 100억 여원 이상이 나오는 효과를 거두는데 실제 사과 1박스가 10만원 나가는데다 청송 주왕산을 찾는 수많은관광객들이 축제장을 찾는 것을 감안한다면 42만이 아니라 5~60만 명에 수백억원의경제가치가 나타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톡톡히 했음을 확연히 느낄 수 있었다.

현지 축제장에서 만난 관광객 J모씨(여, 56세, 전남 해남 소재)는 "신문지면을 보고 처음 이곳을 찾았다"면서, "이처럼 떨어지는 폭포앞에 마련된 멋진 축제장은 참으로 보기 드물다"면서 "앞으로도 이곳 청송사과축제는 결코 빠짐없이 찾아 오겠다"고 엄지척을 내세웠다.

또다른 서울에서 오셨다는 K모씨(남, 61세, 은평구 소재)는 "청송사과축제의 짜임새 있는 추진과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청송군수를 비롯한 공직자분들의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면서 왜 청송군이 전국최고의 군으로 각광을 받는지를 확연히 알 수 있게 됐다"며, "산소카페청송군의 무한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드린다"고 덕담의 말을 전했다.

이처럼, 청송 지역 주민과 상인들은 물론, 외지에서 달려 온 수 많은 관광객들이 이구동성으로 청송군의 사과축제에 큰 박수를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청송군이 이처럼 대박을 터트리는 결과물을 만들어 낸 것은 그 무엇보다 늘상 근무복을 입고 현장에서 활동한 윤경희 청송군수의 「현장지휘철학」을 바탕으로 산소카페청송군을 최대의 군으로 육성해 온 것에서 기인된 것이다.

이렇게 대박 성공을 거둔 청송군이 이번 제17회 청송사과축제에서 타 시·군과 차별화된 점 들에 대해 이모저모를 살펴봤다.

▲ 먼저, 청송군은 이번 청송사과축제에서 사과 꼭지를 치지 않음으로써 농가의 인건비 절감과 과실 신선도 향상 효과가 탁월한 꼭지 무절단 사과판매를 통해 소비자들은 더욱 신선한 사과를 맛볼 수 있었고,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청송사과의 차별성과 우수성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 다음으로 청송군 공무원들의 솔선수범의 모습이 눈부신 성과에 톡톡히 기여한 축제였다. 지난 4일, 이미 기상예보로 4일과 5일에 큰비가 예상된다는 보도가 있은 것처럼, 이날 예상보다 많은 비가 내려 자칫 사과축제에 큰 누가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지만, 침체될 축제장을 발빠른 윤경희 청송군수를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직접 축제장 정비에 발 벗고 나서 축제장을 안정화 시켰고, 이를 바라 본 이곳 축제장을 찾은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구동성으로 청송군의 노력에 '엄지척'을 내세우면서 "역시 청송군은 모든 면에서 탁월한 대한민국을 대표할만한 축제 운영의 면모를 보여주었다"며 찬사와 박수를 아끼지 않고 보냈다.

▲또한, 무릇 축제장에서 바가지 요금은 축제를 병들게 하는 최악의 병폐란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윤경희 청송군수는 바가지 요금 없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바가지요금 및 불공정 상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 운영과 더불어 축제추진위원을 통한 부스 현장 평가 제도를 시행하여 후한 인심과 정이 넘치는 축제장을 만들어 누구나 찾아 오고 싶은 청송, 누구나 맘껏 즐기고 보고 느끼는 오감만족 청송사과축제를 이끌어 냈다.

▲이번 사과축제기간 중, 청송군은 청송이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사과축제에 녹아 들게 준비했다. 이번 축제기간 중, 주왕산국립공원은 발디딜 틈이 없이 관광객들로 차고 넘쳤고, 이곳 축제장은 물론, 파천면 강변에 마련된 4만 2천평의 산소카페 정원에도 수많은 인파들이 줄을 이었으며, 특히나, 씨름대회 등 스포츠를 유치, 사과축제와 연계함으로써 청송군을 온통 축제의 장으로 몰아넣는 등 빼어난 사과축제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타 시군에 반면교사의 토대를 구축한 점은 본보기로 삼아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취재진이 살펴본바와 같이 이번 청송군의 사과축제를 최고의 대박 축제로 이끌어 낸 것은 그 누가 뭐래도 탁월한 리더쉽과 경제적인 안목, 청송군을 반드시 탄탄대로의 부자 청송군에 올려 놓겠다고 공언하며 열과 성을 다해 달려온, 윤경희 청송군수의 탁월한 리더쉽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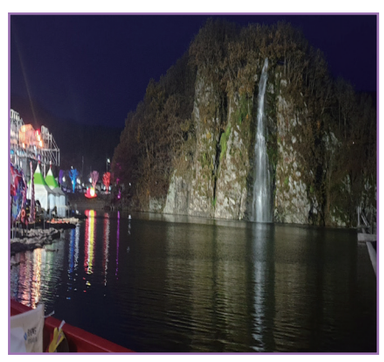
솔직히, 작금의 현실에서 윤경희 청송군수가 추진하는 일은 모두가 대박성공이다. 흔히 옛적 삼성라이온즈의 장효조 야구선수를 두고 안타 제조기라고 불렀는데, 이곳 청송 윤경희 군수는 안타 제조기가 아니라 **'홈런왕 제조기 군수'**라 불러도 그 누구 하나 이이를 달지 않을 정도로 그의 청송사랑과 청송군민을 위한 무한 애정에는 절로 혀를 내두를 정도이다.

한편, 윤경희 청송군수는 "더 많은 관광객들에게 사랑받고 다양하고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청송사과축제가 되도록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청송사과축제를 방문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청송사과축제'를 마무리하면서 하늘도 참 청송군을 도와 주고 있다는 것을 확연히 느꼈다. 취재진은 축제 2일차와 5일차 현장을 찾았는데, 마지막날 비가온다는 일기예보에 안타까움이 들었지만, 하늘이 도우사 이날 축하공연과 불꽃놀이가 화려하게 펼쳐지고 폐막을 알린 후 2분뒤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등 하늘 조차 청송군 사과축제를 축복해 주는 것을 보면서 왜 청송사과축제가 대한민국 대표 축제가 돼야 하는가를 다시한번 느끼게 해줬다.

앞으로도 청송사과축제가 더욱 빛을 발해, 국내 관광객들은 물론, 이번 필리핀 시장 일행이 이곳 축제장을 찾은 것처럼, 세계인들이 이곳 청송사과축제장을 차고 넘치는 축제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려보며, 이 축제를 위해 애써 온 윤경희 청송군수 이하 600여 공직자들과 청송군민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청송군의 앞날에 무한 번영을 기원 드린다.

윤근수/기자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 '부천시 기업 현장간담회' 참석…중소기업 애환 청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주관, 경기신보-부천시 등 부천시 중소기업 각종 민원 해소 위해 새로운 소통 채널 발족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더민주, 부천3)은 3일 부천 IoT혁신센터에서 부천시 관내 중소(제조)기업 대표 12명 등과 함께 부천시 중소기업 현장 소통 및 애로 사항을 듣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임문영 상임이사, 이계열 본부장, 박노진 서부센터장, 경기신용보증재단 권기석 부천지점장, 부천시 이지숙 창업지원팀장, 부천산업진흥원 김길용 지역경제실장 등 유관기관 공직자들이 참여했다.

'부천시 기업 현장간담회(주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과 부천시의 새로운 소통채널로 부천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새로운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역산업 발전에 지속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시작했다.

현장에 참석한 부천의 의료기기 기업대표는 "수출 초보기업은 해외 바이어들과 계약이 성사가 되어도 계약서 작성부터 운송과정까지 미흡함이

많다"며, "경기도가 초보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매니저 사업이 운영됐으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 참석자는 경기도가 불법제조업체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구했다.

그는 "우리와 관련된 업종의 기업이 우리나라에 100여개가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 검증되지 않는 제품을 들여와 문제가 생기면 폐업하고, 이름을 바꿔 다시 영업을 하는 등의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경기도에서 불법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으로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줄어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고환율과 고금리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을 확대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참석자는 "수출주도형 중소기업은 고환율에 더 큰 포화를 맞고 있다"며, "경기도와 부천시가 이런 중소기업들에 대한 금리지원, 사회간접자본 등 비용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중국과 같은 저임금 국가와 경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또한 최근 개최된 G-Fair를 보면 바이어의 참여가 급격히 줄어들었다"며, "전시회 질 향상을 위해서 경기도는 심각하게 고민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영 의원은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심의를 통해 중소기업 금리보조 예산을 증액했다"며, "이런 상황을 모르는 분들이 많은 만큼 경기신용보증재단과 부천시에서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외 및 각 분야의 바이어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G-Fair의 홍보를 확대하고, GBC 글로벌 센터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등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과제가 많다"며, "오늘 현장의 대표님들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경기도의회에서 경과원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 부천의 중소기업에 힘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9명의 부천 굴지 기업대표가 참석해 의견을 더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한국장기요양기관협회와 정담회 개최

"장기요양기관에도 많은 사회복지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과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장기요양기관에도 사회복지사가 있다'라는 주제로 요양기관 종사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한국장기요양지역협회연합 정책연구소 송은옥 박사의 주제발표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으로 ▲ 대상자의 서비스 이용 지원 ▲ 서비스 계획 수립 및 평가 ▲ 가족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장기요양기관에서 실질적인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은 "노인장기요양기관 평가 제도를 통해 서비스의 표준화와 규격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서비스 질과 서비스 제공인력의 역량, 제공인력의 처우(고용불안정, 낮은 급여, 경력불인정 등) 및 지위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타 사회복지시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최저임금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처우수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장기요양기관의 처우개선비 지급 기준을 통일 ▲ 액수를 확대하는 정부의 재정 지원확대 ▲ 근무환경 개선 ▲ 전문성 강화 등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김재훈 부위원장은 "2030년 초고령화사회를 앞두고 국가를 대신해서 사회복지사들이 할 일이 너무 많다"라며, "장기요양 기관의 사회복지사들과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과 "이런 정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갖고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박재용 의원은 "여러 복지 분야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고 하며, "경기도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어디에서 근무하던 간에 차별받지 않도록 경기도의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3년 10월 현재 전국적으로 약 27,000여개의 장기요양 기관이 운영 중이며, 2023년 10월 기준으로 장기요양기관 종사 사회복지사는약 6만 5천 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전체 사회복지사약 21만 명 중 약 30%에 해당된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경기도 및 시 · 군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단 정담회 개최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사회복지자원봉사 사업이 지속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

김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과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일(목)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시.군 사회복지자원봉사 사업" 2024년도 보조금 예산 건의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 경기도 및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단 정담회를 개최했다.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단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시.군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본부는'사회복지자원봉사 사업 지침'등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센터 모니터링 ▲사회복지종합정보망 운영▲ 지역사회봉사단 구성 및 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 중이나 사업 보조금이 삭감될 경우에 위 역할을 수행할 시.군 단위 관리본부의 부재로 인하여 도내 사회복지자원봉사 사업에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김재훈 부위원장은 "해당 부서에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경기도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와 긴밀한 협의와 소통을 통하여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재훈 부위원장은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사회복지자원봉사 사업이 일몰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강기태 회장 및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 23명이 참석했으며, 시·군 자원봉사사업의 필요성 및 사회복지협의회의 예산 확보를 위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Gyeonggido Assembly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에 차별있어서는 안돼' 이주여성 지원 강조

정윤경 도의원,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단 회의 참석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일에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열린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단' 회의에 참석해 젠더폭력 예방 정책의 문제점과 정책환경 및 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의했다.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체계가 각각으로 나뉘어 사각지대 및 지원 격차가 발생해 통합대응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요구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통합체계를 구성해 젠더폭력을 근절하고 빈틈없는 피해자 지원을 하기 위해 이번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윤경 의원은 "경기도는 이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조차 없다"라고 말하며, "이주여성은 젠더폭력에 사각에 있는 사람들이다. 더 이상 피해자 지원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윤경 의원은 오는 6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국 회의실에서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범상/기자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경기도민 10명 중 8명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에 공감"

지역 다문화교육센터 구축 공감도 조사, 경기도민 79.8%가 긍정 답변

경기도민 10명 중 8명이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공교육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에는 '한국어 교육'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 다문화교육 추진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조사에 참여한 경기도민의 54%가 경기도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학생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는 사실을 안다고 응답했다.

다문화가정 학생이 겪는 어려움으로는 사회적 편견(39.9%)과 의사소통의 어려움(32.3%)이 가장 우선으로 꼽혔다.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 1순위는 ▲한국어 교육(55%)이었고,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우선 지원사항 1순위는 ▲학교 안 한국어 강사(31.1%)라고 응답했다.

지역맞춤 다문화교육을 위한 지역 다문화교육센터 구축에는 79.8%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다문화교육센터에 개설할 프로그램으로는 ▲한국어 교육(34.4%) ▲심리정서교육(30.5%) ▲문화예술교육(19.5%) 등을 꼽았고, 일반학생과 다문화가정 학생의 어울림 교육을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37.7%) ▲심리정서 상담 지원(25.1%) ▲이중언어교육(17.8%) 등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나왔다.

지역 다문화교육센터에서 이중언어 강사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강사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71.2%가 공감했고, 그 이유로는 양쪽 문화를 이해한다는 점을 꼽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달 안산에 경기 한국어공유학교가 문을 열었고 동두천과 남양주에도 11월 말 개교할 예정"이라면서 "센터 구축을 통해 지역맞춤 다문화교육 정책을 널리 알리고, 다문화가정 학생이 강점을 살리며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10월 17일부터 8일간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 1,200명 대상 전화 면접조사로 진행했다. 여론조사기관은 리서치앤리서치이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81%p이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경기북부 발전 원동력 확보위한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독려

김완규 위원장(국민의힘, 고양12)을 비롯하여 고은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 등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들이 2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열린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개발계획 수립 용역 중간 보고회"에 참석했다.

용역을 추진 중인 산업연구원 이원빈 박사는 이번 중간보고에서 경제자유구역 현황 및 경기 추가지정의 필요성, 해외 사례 분석에 따른 시사점을 비롯하여 추가지정 개발구상 및 추진 전략 등에 대해 발표했다.

김완규 위원장은 용역에서 보고된 고양시 경제자유구역의 4대 핵심 전략 산업 바이오·정밀의료, K-컬쳐, 스마트모빌리티, 마이스(MICE) 등에 적극 공감하며, 김포·파주 등과 연계한 경기 북부 신성장 혁신 벨트에 고양시가 중요한 위치임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경기자유구역 추가지정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오늘 중간보고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중요한 조언과 제안을 기대합니다. 또한 경기도와 고양시 실무 담당자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이번 중간 보고회 중요성을 언급하며, 관계자들을 독려했다.

김범상/기자

문화도시 수원, SNS 이벤트 진행

유튜브 채널 '사피엔스 스튜디오' 수원편 리뷰 및 퀴즈 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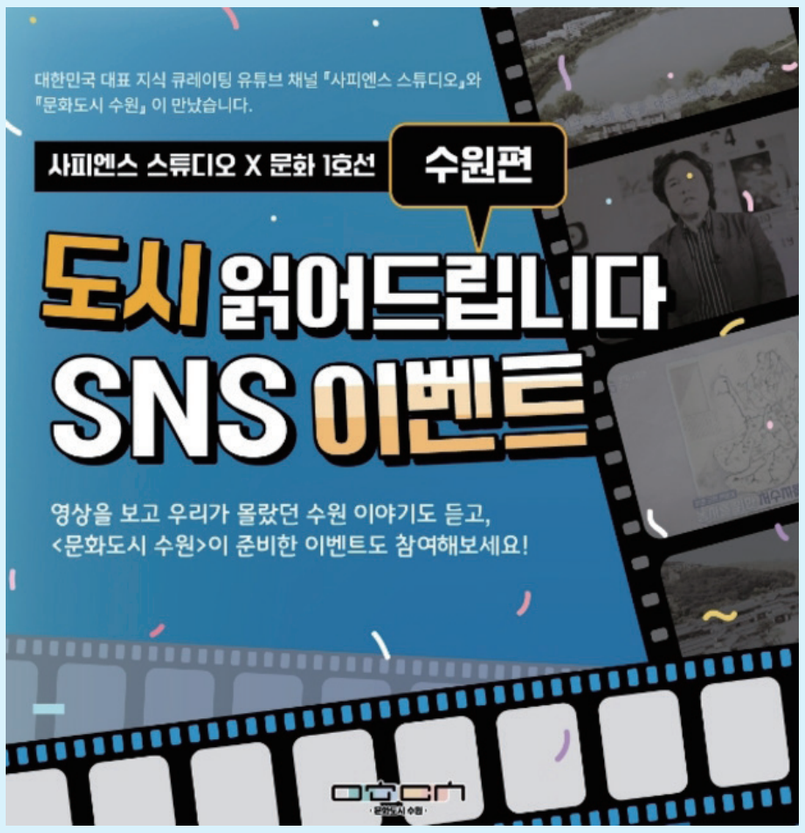
수원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가 문화1호선 홍보를 위해 SNS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SNS 이벤트는 구독자 189만명의 지식콘텐츠 유튜브 채널 사피엔스 스튜디오 '도시 읽어드립니다_수원편' 영상을 보고 소감을 남기거나 퀴즈를 풀어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는 11월 16일까지 진행하며,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선물한다. 당첨자는 오는 20일 발표할 예정이며,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도시 수원'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도시 읽어드립니다_수원편'은 문화1호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호선 라인의 5개 문화도시(수원, 부평, 부천, 영등포, 의정부) 간의 경계를 허물고, 철도를 통해 5개 도시의 역사를 관통하여, 문화로 이어가는 미래 구상을 도시문헌학자 김시덕 박사의 이야기를 통해 들을 수 있다.

특히 수원편은 철도 발전에 따른 도시의 확장과 수원의 근현대사를 토대로 수원이 ▲역사의 도시 ▲철도의 도시 ▲농업의 도시로 일컬어지기까지의 과거와 현대를 흥미롭게 재조명한다.

김범상/기자



신상진 성남시장, '스마트시티 월드 콩그레스' 참석차 스페인 방문

관내기업 해외진출 지원, 스마트 시티 협력방안 논의

신상진 성남시장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2023 스페인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Smart City Expo World Congress, SCEWC) 참석차 6일부터 12일까지 5박7일 스페인 출장길에 올랐다.

이번 출장에서 SCEWC 참관 및 성남관 운영을 통해 성남시의 스마트도시 정책을 알리고 스페인의 대표적 스마트시티인 바르셀로나, 빌바오, 산탄데르 등을 방문해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바르셀로나 시청과 피라 바르셀로나가 주최·주관하는 SCEWC는 매년 약 140개국, 700여 도시와 800 여개 기업, 연구센터 등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의 스마트시티 전시회다. 올해는 디지털 전환, 도시환경, 모빌리티 등 8개 분야의 전시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는 성남시가 대표로 있는 8개 기관 컨소시엄이 국토교통부의 2023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사업자로 최종 선정되어 참가하게 됐다. 박람회 동안 현지 상담을 통해 성남시 첨단 드론산업의 해외진출을 모색하기 위한 홍보활동에 나선다.

성남관 홍보부스에서는 ▲성남시의 스마트시티 주요 사업 (AI 폴 서비스, AI무선융합 네트워크, 공공와이파이, CCTV 통합플랫폼) ▲국내 첫 도심배송 상용화 서비스 표준 모델을 제시한 공원드론배송 ▲위험업무를 사람 대신 드론으로 대체하는 지하시설물 조사 드론 ▲ 산불 진화에 효율성을 극대화한 산불진화 드론 등 성남시의 스마트시티 추진 성과를 홍보할 계획이다

신 시장은 또한 세계적인 스마트시티로 잘 알려진 빌바오시와 산탄데르시를 방문해 빌바오시장과 산탄데르시 주요 관계자를 만나 도시 간 최근 스마트시티 기술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산업·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에 맞춰 도시 간 협력도 일상적 교류에서 스마트시티·디지털·4차 산업 기술 분야로 확대되어야한다" 며 "이번 박람회 참석을 통해 관내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스마트시티로서의 성남시를 세계시장에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용인특례시, 죽전 방음터널 '수동식 진입차단기' 철거

이상일 시장의 SNS에 오른 시민 제안 확인하고 결정…자동차단기로 대체 방침

용인특례시는 동백죽전대로 죽전교차로 구간(수지구 죽전동 1398 일대) 방음터널의 죽전에서 동백 방향에 설치했던 수동식 차량 진입차단기를 철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한 시민이 이상일 시장의 SNS에 "관리가 소홀해 보이는 터널 진입차단시설의 실태를 점검해달라"고 올린 것을 본 이 시장이 시설물 점검을 지시하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취해진 조치이다.

시는 점검 결과 이 진입차단시설의 경우 비상 상황이 발생할 때 사람이 높이 4.5m 높이의 시설에 올라가 수동으로 작동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영하기 어려운데다 재난에 신속히 대처하는데도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철거를 결정했다.

통상 지하차도나 터널 입구에는 화재나 집중호우 등이 발생할 경우 후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한다.

시는 지난 2015년 개통된 길이 280m, 폭 20m인 죽전교차로 구간 방음터널의 죽전-'동백 방향 수동식 진입차단시설에 운영의 문제가 있는 만큼 철거하고 추후 예산을 확보해 자동차단기를 설치할 방침이다.

이 터널은 차단기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지만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재난 피해를 막기 위해 자동차단기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용인특례시에는 터널 24곳과 방음터널 25곳, 지하차도 22곳이 있다. 이들 가운데 법화터널, 마북터널, 기흥터널과 죽전지하차도 등 모두 4곳에 자동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다.

자동차단기는 해당지역 구청 재해대책종합상황실에서 CCTV를 통해 실시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비상상황이 생기면 차량 진입차단시설을 원격으로 가동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의무 설치대상은 아니지만 차량통행량이 많은 삼막곡 제1·2지하차도, 상현지하차도의 경우 내년에 자동차단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보기에도 좋지않은 수동차단시설을 철거하고 비상 상황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는 자동 차단기를 설치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시민들께서 SNS등 여러 채널을 통해 합리적이고 좋은 제안을 해주신다면 현장을 확인해서 시정이 필요한 것들은 신속하게 바꾸고 고치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안양시, 수도군단 생활체육시설 내 '충의쉼터' 조성

최대호 안양시장 "민·관·군 소통의 장 마련 축하"

안양시 동안구의 수도군단 생활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 안에 안양시민과 군 장병이 이용할 수 있는 '충의 쉼터'가 문을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쉼터 조성은 수도군단 내 잘 보존된 참나무 숲을 쉼터로 조성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과 장병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7월 문을 연 체육시설은 축구장·풋살장·족구장 등을 갖추고 있어 안양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시민과 군 장병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조성한 충의 쉼터의 총면적은 426㎡(129평)로 무대와 객석으로 구성돼있으며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파라솔과 테이블, 의자를 배치했다. 시설물은 친환경 목재 데크로 시공했으며, 주변에 경관조명을 설치했다.

개방시간은 동절기(11~2월) 기준 평일 8시~16시이며, 수요일·주말·하절기에는 당겨진다. 또 군사시설 보안을 위해 사진 촬영은 금지된다.

도시화가 완료돼 가용토지가 부족한 안양에서 부대 내 잘 보존된 자연공간을 쉼터로 활용함에 따라 군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고,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민·관·군의 소통의 장이 마련되는 만드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곳에서 다양한 문화와 체육활동이 펼쳐지며 소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쉼터 조성을 기념해 지난달 30일 개장식 및 장병들과 함께하는 '가을愛 10월 힐링콘서트'를 개최했다.

신우용/기자

안산시, 제2차 지역문화 네트워크 활성화 워크숍… '지역 예술인 역량 강화'

안산시는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대부광산문화유산보존관리센터 등에서 '제2차 지역문화 네트워크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민선 8기 공약 사항 중 하나인 '지역생활문화 네트워크 기반 구축'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워크숍은 안산문화재단, 안산문화원, 한국예총 안산지부, 안산민예총, 안산시립예술단 등 지역문화예술 대표단체 및 관계자 60여 명이 참여했다.

워크숍은 지역문화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보조금 실무 교육 ▲성희롱·성폭력예방 교육 ▲힐링음악회 ▲대부도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또, 대부광산문화유산보존관리센터, 유리섬 및 종이미술관, 경기도무형문화재 제12호로 지정된 옥로주전수관 체험 등도 진행하며 예술단체 간 상호 이해 도모,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화합과 소통의 자리로 채웠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안산의 문화예술 수준과 가치를 높이고 시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품격 있는 문화예술을 향유 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 예술 관계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소통해 이를 행정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고양시 한 해 살림이 한 권에…
'시민과 함께 보는 고양시 살림살이 2022' 배부

이상일 시장의 SNS에 오른 시민 제안 확인하고 결정…자동차단기로 대체 방침

고양특례시가 한 해 살림을 한 권에 볼 수 있는 결산서 '시민과 함께 보는 고양시 살림살이 2022'를 제작해 고양시 누리집에 공시하고 민원실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했다고 6일 전했다.

'2022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이 지난 10월 고양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을 받음에 따라, 시는 시민들에게 고양시의 재정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이번 결산서를 제작해 공개했다.

고양시의 22종의 결산서 및 첨부서류는 일반 시민이 이해하기에는 복잡할 수 있다. 시는 고양시 재정에 관한 시민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어려운 회계용어는 순화하고 주요한 정보는 표와 그래프로 시각화해 시민 맞춤형 결산서를 제작했다.

'시민과 함께 보는 고양시 살림살이 2022'는 고양시 일반 현황, 회계 현황, 예산과 재무 결산, 유사 지자체와의 재정 비교로 구성됐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제작한 고양시의 결산보고서가 시민들의 고양시의 재정과 살림살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것이라 기대한다. 앞으로도 시민에게 열려있는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을 운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영기/기자

이천시, 경기도 농어민대상 4개 부문 수상

이천시는 '제30회 경기도 농어민 대상' 수상자로 식량작물, 특용작물, 낙농·육우 및 농어촌활력 부문 등 4개 부문에서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알렸다.

올해로 30회째를 맞는 경기도 농어민 대상은 식량·원예·특용·수산 등 총 15개 부문에서 경영능력·유통개선·재배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경기도 농어업발전 기여도가 큰 우수한 농어민을 선정하고 있으며, 금번 심사결과 이천시가 4개 부문을 수상하는 영예를 가졌다.

식량작물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김광수씨는 이천시 대월면의 벼재배 전업농으로 현재 12.5ha 규모의 논에서 품종비교 및 신기술 도입 등 고품질 이천쌀 생산에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농촌진흥청과 이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한 해들(조생종) 및 알찬미(중생종) 품종의 홍보 및 보급에 앞장서 외래 품종(추청, 고시히카리 등) 대신 국내 육성 품종의 확대재배에 공헌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용작물 부문 수상자 유근무씨는 이천시 신둔면에서 30여 년간 인삼을 재배하면서 연작장해 극복을 위한 토양환경 개선, 뿌리썩음병 방제를 위한 관리기술을 체계화하고, 고온피해 경감을 위한 해가림 차광막과 관수시설 설치 등 신기술 도입으로 농업 생산성을 꾸준히 향상하고, 국농수산대 현장실습교수로 위촉되어 활동하면서 후계영농 육성에도 힘쓰고 있으며, 현재 한국인삼 6년근 경작협회장으로 활동하며 인삼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했다

낙농·육우 부문 수상자 원유국씨는 이천시 마장면에서 18년 동안 낙농업(동복목장)을 운영하며, 한국홀스타인 품평회에서 최우수를 수상하는 등 젖소 개량능력을 인정 받았으며, 서울우유협동조합 품질관리위원, 한국낙농육우협회 감사 등 관련 단체에서 임원으로 16년간 활동하며 축산농가의 정보교류 및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해 노력했고, 이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한우 초유 공급협력농장에 5년간 활동하며 젖소 뿐아니라 한우농가를 위해서도 기부활동을 꾸준히 했다.

마지막 농어촌활력 부문 수상자 남혜인씨는 이천시의 최남단 율면 부래미마을로 귀촌을 하면서 염료식물인 홍화를 재배하고 문화적 지리적 밤나무와 도토리나무, 붉나무, 꼭두서니등등 산에는 임업관련 들에는 농업의 자연재료를 이용하여 천에 물을 들이고 체험하고 교육을 하면서 체득한 염료식물, 주변 농림부산물이 바탕이 되어 서적도 출간했으며, 홍화재배와 홍화염색으로 논문을 발표하고 자연부락인 부래미 농업농촌에서의 전통 천연염색 문화를 농업농촌의 다양한 재료의 물성으로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 소득을 높이는 성과를 거둔 공로를 인정받았다.

수상자는 각종 영농자금 우선지원과 농어업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영농교육 강사 위촉 등의 혜택이 부여되며, 3일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28회 경기도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시상했다.

김범상/기자

전남도, 제조업 5개 기업과 423억원 투자협약

순천·광양·영암·함평·해남에 170명 신규 일자리 창출 기대

전라남도가 최근 2개월간 시군과 협력해 제조업 분야 5개 기업과 423억원 규모의 서면 투자협약을 했다. 투자협약으로 기업 유치가 마무리되면 순천, 광양, 영암, 함평, 해남에 170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순천 율촌산단에 티와이세라㈜, 광양 옥곡신금산단에 ㈜서호산전, 영암 대불국가산단에 ㈜목원이엔지, 함평 동함평산단에 ㈜플러버, 해남 땅끝해남식품특화단지에 농업회사법인 ㈜해남참농가가 각각 투자협약을 했다.

투자협약에 따라 티와이세라는 순천 율촌산단에 191억 원을 투자해 글래스 프릿(Glass frit·유리분말) 공장을 이전하고 이차전지 양극재용 수산화리튬의 건조 및 포장 공장을 신설해 연관 업체와 운영 효율을 극대화한다.

서호산전은 광양 옥곡신금산단에 38억 원을 투자해 수배전반 및 제어반 제조공장과 사무실을 신설한다.

목원이엔지는 영암 대불국가산단에 134억 원을 투자해 대형 선박용 스틸 파이프 제조공장과 사무실을 신설하고, 특허 기술을 활용해 연간 18만 개의 제품을 출하할 계획이다.

플러버는 함평 동함평산단에 30억 원을 투자해 실외 스포츠 바닥재로 이용되는 시트형 탄성포장재와 실내용 고무 바닥재 생산공장을 신설한다. 국내 탄성 포장제품 최초로 미국 수출을 개시해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

해남참농가는 해남 땅끝해남식품특화단지에 30억 원을 투자해 고구마를 활용한 고구마칩과 스틱, 고구마 페이스트 생산공장을 신설해 다양한 안전 먹거리를 제공·수출한다.

김대인 전남도 투지유치과장은 "최근 식품, 조선업, 이차전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며 "전남에서 사업을 시작한 신규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수출 지원, 지속적인 피드백 제공 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순천시, 지금청년이 찾아가는 '미리청년교실' 성료

지금청년(18~45세)과 미리청년(15~17세)소통으로 세대 공감을 잇다

순천시는 지난 3일 관내에서 활동하는 1845청년인재풀들이 남산중학교를 찾아가 240명을 대상으로 두 번째'미리청년교실'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미리청년교실은 지금 청년들이 미래에 청년이 될 청소년인 미리 청년들을 만나 소통하고 긍정적이고 건전하게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멘토가 되어주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8월 신흥중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바리스타 ▲공연기획자 ▲퍼스널컬러 ▲노플라스틱 ▲도자기클래스 ▲화과자만들기 ▲원예치료 ▲조향까지 총 8가지 테마를 주제로 1845청년인재풀에 등록된 청년들을 매칭해 진행했다.

특히, 사전에 미리청년들이 희망하는 테마를 바탕으로 체험프로그램을 함께 구성하고, 지금 청년들과 소통으로 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 미리청년들의 호기심과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K모 군(남산중)은 "지역의 형, 누나들이 강사가 되어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관심 분야의 현장감을 느낄 수 있어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멘토로 참여한 H모 씨(32세)는 "우리 시의 청년정책을 알리는 계기도 되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아이들과 눈높이에서 소통하며 친밀감을 높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임했다"라고 참여 소감을 전했다.

순천시 나옥현 청년정책과장은 "미리청년교실은 세대를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세대를 연결하는 프로젝트"라며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우리 지역에서 미래를 설계하는 데 보탬이 되어 지역사회의 건강한 청년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1845청년인재풀은 18~45세까지 순천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청년들의 인력풀로 현재까지 140여 명이 등록했으며, 인재풀에 등록한 청년들은 시 위원회, 강사, 심사위원 등에 추천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시는 두 차례 시범 운영의 선호도 분석을 통해 내년에는 미리청년의 요구를 반영하고 지역을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장체험 및 지역탐험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승준/기자

전라남도 대표 축제 2023 대한민국 국향대전, 성황리에 마무리

농·특산물 판매장,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축제장 활력 제고

'나를 위한 행복 여행 in 함평국화'라는 주제로 개최된 전라남도 대표 가을 축제 '2023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17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함평군은 "지난달 20일 개막한 '2023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관람객들의 호평 속에 폐막식을 끝으로 지난 5일 마무리됐다"고 6일 밝혔다.

올해 국향대전은 17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 6억 3천만원의 입장권 판매 수익을 올렸으며 군민이 직접 참여한 함평 청정 농·특산물 판매장과 음식점, 편의점이 축제장에 활력을 불러일으켜 8억 8천여만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다.

아울러, 축제장 외 자연생태공원, 양서파충류생태공원 및 읍 소재지 상가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가 축제 기간 중 지역경제가 더욱 활기를 띠었다.

이번 축제에서는 국화 조형물 74점이 함평의 우수한 재배 기술로 아름답게 조성됐으며 군민과 함께하는 플래시몹, 청소년 프린지 페스티벌, 시낭송, 함평의 이야기를 극으로 표현한 '오상고절이어라' 창작공연 등 색다른 공연들이 관람객들을 맞이했다.

또 축제장에서는 국화차 시음, 풀잎 연주체험, 징거미 새우 잡기, 국향대전 모바일 스템프 투어, VR체험장 등 특색 있는 체험거리로 남녀노소 구분없이 많은 관람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중앙광장에서는 마법의 성이 이국적인 자태를 뽐냈으며 국화 분재 작품전시관에는 14가지 수형, 함평 명품 국화 분재 180점을 감상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군은 핑크뮬리와 황금빛 억새가 우거진 습지공원에서 전통놀이 체험과 국향막걸리·손수건 만들기, 인디언텐트·해먹 쉼터를 운영해 자연 친화적인 휴식처를 제공했다.

특히 축제 기간 매주 토요일 저녁에는 최신식 조명장비가 탑재된 700대의 드론이 축제장의 밤하늘을 오고 가며 함평 선물상자, 오색찬란한 국화, 꽃무릇, 뱀장어, 돌머리해수욕장의 낙조를 표현하여 관람객들에게 낭만 가득한 함평의 가을밤을 선사했다.

또한, 축제의 끝은 알리는 이번 폐막식에서는 함평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은 사랑의 기부 행렬이 이어졌다.

페이스페인팅 프로그램으로 참여한 아라체험 대표 이선영씨가 인재양성기금 1백만원, 세계음식점인 블루파이브 오션 대표 이순씨가 고향사랑기부금 3백만원, 함평을 사랑하고 제2의 고향으로 여기시는 정성훈씨가 고향사랑 기부금 5백만원을 기탁했다.

아울러 매년 축제를 위해 최선을 다해 봉사하는 함평군 여성자원봉사회 등 9개 단체에 이상익 군수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2023 대한민국 국향대전에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과 축제를 위해 헌신해주신 군민, 자원봉사자,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내년 봄에는 더욱 특색있고 발전된 모습으로 나비대축제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완도군, 지속 가능한 발전 이룰 'ESG 행정 전략' 수립 박차

'해양 생태계 보전 등 완도만의 특화된 내용 추진하기로'

완도군은 지난 10월 31일 급변하는 시대 대내외적 상황을 분석·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방안을 제시할 '완도형 지속 가능 발전 ESG 행정 전략 수립'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의 위기 속에서 친환경(Environment)과 사회적 책임(Social), 윤리경영(Governance)을 아우르는 'ESG' 경영의 중요성은 이미 강조돼 왔다.

최근 공공영역으로도 확장돼 행정도 '성장' 중심에서 '지속 가능성' 중심으로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군은'완도형 지속 가능 발전 ESG 행정 전략 수립'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보고회에서는 용역 추진 계획과 방향에 대한 토론 및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특히 지속 가능 발전 기본법에 명시된 '지속 가능 발전 기본 전략 수립' 등 법정 의무 사항과 '완도군만의 특화된 내용'이 추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했다.

군은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그동안 청정바다 수도의 기치 아래 추진하던 '해양 생태계 보전' 등 군정 전반의 모든 사업과 정책들이 ESG 행정과 연계시켜 나갈 계획이다.

신우철 군수는 "ESG를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 조성은 군민 모두가 잘 사는 완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면서 "군은 기후변화 대응,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ESG 행정을 선도하는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양영율/기자

청소년의 꿈이 연처럼 두둥실, 남원시 청소년 연날리기 대회 성료

지난 11월 4일, 남원시청소년육성회(남원시 청소년 연날리기 대회가 요천변 십수정 일원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학부모가 모두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펼쳐졌다.

이번 행사는 식전 풍물놀이, 기풍제시연, 시범연날리기, 연날리기 대회, 시상식 등 순서로 진행됐으며, 특히 '청소년이 함께 참여하는 캘리그래피'와 '연날리기 체험'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연날리기 대회 결과 대상 1명, 금상 2명, 은상 4명 등 총 22명이 수상의 영광을 품에 안았으며 대상은 박지연(도통초, 2학년) 청소년에게 돌아갔다.

한 남원시청소년육성회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민속연에 관심을 가지고 전통놀이의 명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를 두었다. 앞으로도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남원시 여성가족과 차미화 과장은 "훨훨 날아가는 연처럼 모든 청소년들이 높은 꿈을 가지고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시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이남출/기자

나주시, 베트남 수출시장 확대 … 농수산식품 300만불 수출 MOU

나주산 농수산물의 해외시장 진출이 민선 8기 들어 가속화되고 있다.

윤병태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활발한 해외시장 발품 세일즈에 힘입어 지난해와 올해 미국, 6월 중동 아랍에미리트에 이어 동남아 국가인 베트남까지 수출 물고를 확장하는 성과를 냈다.

전라남도 나주시는 베트남 현지 날짜로 지난 2일 '베트남 동양농수산'과 300만불 규모 나주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베트남 방문단은 강영구 부시장, 나주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최문환·김철민 시의원을 비롯해 골든힐, 나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 완도물산, 가보팜스 등 농수산식품 업체 대표, 배원예유통과 직원 등 11명으로 꾸려졌다.

협약을 체결한 베트남 동양농수산은 2013년 법인을 설립, 하노이에 본사를 둔 글로벌 농수산식품 유통업체다.

하노이, 호치민, 하이퐁 등 5곳 지역에 매장 7개소를 운영하며 연평균 매출액이 106억원을 달성했다. 특히 동양농수산의 전체 수입물품 중 약 90%를 나주산 농수산식품이 점유하고 있다.

동양농수산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화로 약 40억원 규모 나주산 농수산식품을 베트남 현지 자사 마트에 유통할 계획이다.

협약과 더불어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원마트, 플러스마트에선 오는 15일까지 나주 농수산식품 14개 품목에 대한 수출·홍보 판촉 행사가 진행된다.

강 부시장을 비롯한 방문단 일행은 이날 협약식 이후 동양농수산 원마트에 판촉행사에 참여해 나주산 우수 농수산식품을 현지인들에게 홍보했다.

나주시는 이번 협약을 포함해 민선 8기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1900만불 규모 지역 농수산식품 해외수출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베트남을 비롯해 지난해 미국 최대 한인 유통업체인 한남체인, 올해 6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천사마트(1004 GOURMET), 10월 미국 뉴저지주 H마트 등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발품 세일즈에 주력하고 있다.

김영안/기자

전북도, 가을철 진드기·설치류 매개감염병 주의 당부

야외활동 후 고열, 구토 등 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 방문

전북도는 추수철·행락철을 맞아 농작업 등 야외활동 시 가을철에 주로 발생하는 발열성 질환인 진드기·설치류 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으로는 쯔쯔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로 쯔쯔가무시증은 전체 환자의 80% 이상이 털진드기 유충의 활동 시기인 9~11월에 집중 발생하며, 올해 10월까지 발생한 환자 수는 전국 1,796명, 전북 27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전북에서 10월에만 발생한 환자 수는 119명으로 도내 전체 환자 수의 42% 이상을 차지한다.

또한 올해 10월까지 발생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환자 수는 전국 193명 중 34명이 사망해 치명률이 약 18%이며, 전북은 발생환자 15명 중 현재 사망자는 없다.

특히,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백신과 치료제가 없으며 치명률이 약 20% 전후로 높아, 사전 예방과 환자

조기발견·적기치료가 중요하다.

설치류(쥐) 매개 감염병으로는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이 있는데, 렙토스피라증은 주로 태풍, 홍수, 장마 때 오염된 물을 통해 균에 노출된 후, 9~11월에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계절적 특성을 보이며, 10월까지 발생한 환자 수는 전국 40명, 전북 4명으로 집계됐다.

신증후군출혈열은 야외활동이 많은 사람에게 주로 발생하며, 성별로는 남자, 직업별로는 군인과 농부에서 환자가 집중됐다. 올해 10월까지 발생한 환자 수는 전국 289명, 전북 22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신증후군출혈열 감염 위험이 높은 농부, 군인 등은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을 권장한다.

이송희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가을철 야외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작업 등 야외활동 후 발열, 두통, 근육통, 소화기 증상 등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료진에게 야외활동력 등을 알리고 적기에 치료받아야 한다"며, "의료인은 가을철에 감기 증상의 환자가 내원할 경우 진드기.설치류 매개 감염병일 가능성을 염두해 야외활동력 등을 문진하고, 적극적인 진단 및 치료를 시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작물 수확, 여행 등 야외활동 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진드기와 설치류(쥐)와의 접촉을 피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구례군, 사랑의 땔감 나누기 추진

숲에서 주는 온정으로 겨울철 따듯함을 보태요

구례군은 2023년 동절기 취약계층이 난방비 걱정 없이 따뜻한 겨울을 나도록 '사랑의 땔감 나누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랑의 땔감 나누기'는 숲 가꾸기 및 산림패트롤 등 산림사업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활용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기초생활 수급자 등에게 난방용 땔감을 지원하는 행사다.

이번 사랑의 땔감은 읍·면사무소를 통해 추천된 저소득 취약계층 등 56세대로 세대 당 2입방미터(㎥)씩 총 112입방미터(㎥)의 난방용 땔감을 10일까지 대상 세대에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사랑의 땔감 나누기는 난방 취약계층의 난방비 절감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온정도 함께 배달해 훈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있어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또한 산불 발생 시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는 산림 내 연료 물질을 사전 제거함으로써 산불재난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구례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산림 부산물을 재활용, 산불 등 산림재해를 예방, 이웃 사랑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김순호 군수는 "사랑의 땔감 나누기 행사가 군민과 함께 동행하는 산림행정을 잘 담고있다"며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사회 나눔 정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현/기자

진도군, 국화전시회 야간개장으로 인기몰이

진도개테마파크, 향토문화회관, 철마광장 등…밤 10시까지 운영

진도군이 '국화향기는 진도아리랑을 타고'라는 주제로 국화전시회를 15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국화전시회는 야간개장도 함께 진행해 낮에 보는 국화전시장과는 또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야경맛집으로 꼽히고 있다.

국화전시회 야간개장은 화려하고 따뜻한 조명이 함께해 더 반짝반짝 빛나는 국화를 눈에 담기 위해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계속되고 있다.

올해 국화전시회는 국화 12만본을 추억, 치유, 희망, 농산물의 4개 테마로 대형조형국, 분재국, 현애국, 대국 등 500여점의 다양한 국화작품과 조형물로 전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놀이기구와 짚라인 등의 즐길거리를 확대 설치해 아이부터 어른까지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행사장으로 꾸몄다.

또 곳곳에 설치된 진도개, 이순신 장군, 진도대교, 진도농산물 등의 국화조형물과 다양한 포토존은 방문객들에게 잊지못할 추억을 선물하고 있다.

규모 또한 작년보다 5배 이상 확대되고 야간개장도 함께 진행하면서 진도군민들과 진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주요 관광코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가족여행을 위해 경기도에서 진도를 방문한 한 관광객은 "진도개테마파크의 야간 국화전시회를 못보고 갔으면 어서 주말에 멀리 나갈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좋아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진도를 찾는 모든 분들께 소중한 추억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진도군만의 차별화되고 다양한 행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화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진도개테마파크는 아리랑식물원과 함께 ▲진도개 Dog스포츠 ▲진도개 홍보관 ▲진도개 놀이터 ▲미니동물농장 ▲테마파크썰매장 등을 연중 운영하고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곳이다.

김영진/기자

신안군 남하부엌, 양곡창고에서 1004섬 매력 레스토랑으로 탈바꿈

양곡창고를 매력의 요리 공간으로 화려하게 변신한 남하부엌 레스토랑

신안군은 '사계절 꽃피는 1004섬', '1도 1뮤지엄', 'UN이 선정한 최우수 관광마을 퍼플섬' 등 청년이 찾아오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먹거리 지역 활성화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3월 총면적 682.73㎡ 규모의 양곡창고를 매입하고 2021년 5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수리 완료 후 운영자 공개모집을 거쳐 '1004섬 신안 남하부엌'이라는 카페·레스토랑을 11월 4일 개장하게 됐다.

'1004섬 신안 남하부엌'은 지역의 특색을 살린 먹거리 공간의 카페· 레스토랑으로 하몽을 이용한 피자, 파스타, 커피 등 다양하고 특색있는 메뉴를 선보인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다양한 먹거리가 부족한 우리 농어촌지역에 새로운 지역 활성화와 관광 기반 개발을 통해 신안군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고자, 유휴시설 정비를 통해 다양한 먹거리 공간을 만들어 청년이 찾아오고 살고 싶은 신안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강진군 도암면 주민자치위, 남양주시·목포시 상동과 협력 강화

자매결연지 교류협력 강화로 지역 상생 발전 도모

강진군 도암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달 30~31일 이틀간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및 목포시 상동과 교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도암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자매결연도시 간의 우애를 돈독히 했다.

첫날인 10월 30일에는 남양주시 진접읍 주민자치회(회장 김기철)가 도암면사무소를 방문해 양 지역 간 특산품 교환을 시작으로 따뜻한 환담을 나눴다. 특히, 올해로 새롭게 주민자치회로 전환한 진접읍은 도암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 사례를 배우며, 다산 정약용의 사상을 현대적 주민자치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지에 관해 깊은 관심을 보이며 심도 있는 대화를 이어갔다.

31일에는 강진군 도암면과 자매결연을 맺은 목포시 상동에서 열린 '양을산 뜨락축제'의 개막식에 참석하며 상동 주민자치위원회(회장 장홍풍)와의 상호 우정을 확인했다. 이 축제는 상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주도하는 지역축제로,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다.

이 자리에서 도암면 주민자치위원회는 강진 찹쌀을 선물하며 축제의 성공을 기원했고, 내년 도암면에서 열릴 동백축제에 대해 홍보와 함께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교류는 각 지역의 주민자치 활성화 및 도암면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며, 앞으로도 교류 협력을 강화해, 상호 간에 지역 특산물 홍보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활동을 지속한다는 예정이다.

추윤호/기자

화순 낙화놀이 축제, 우천 예보로 일주일 연기

화순청년회의소(JCI)는 오는 5일 비 소식이 예보되자 예정했던 '화순 낙화놀이 축제'를 일주일 연기했다.

화순청년회의소(JCI)는 화순군민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 관광객을 생각하며 이번 축제를 풍성하게 준비해 왔으나, 5일 비 소식이 있을 것이란 기상청 예보에 따라 행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본 행사 관계자는 "화순읍 꽃강길 일원에서 이날 예정된 소원지 쓰기, 불단 던지기, 낙화놀이 행사가 우천으로 모두 연기됐다."라고 말하며, "일주일 후인 11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최키로 했으니 많은 분이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화순 낙화놀이는 지난 1976년까지 화순 적벽에서 펼쳐졌던 화순만의 전통 놀이로, 이번 행사를 통해 소실됐던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의미 있는 기회의 장을 열 예정이었다.

윤경호/기자

목포시,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사업 보행도로 시민참여로 조성한다

보행 전용도로에 2023명 국민들의 글귀 담는다

목포시가 서산당 보리마당 도시재생 지역 보행도로에 2,023명 국민들의 글귀를 각인한다.

목포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2017년'서산동 보리마당'이 선정되어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까지 마무리 예정에 있다.

시는 도시재생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서산동 보리마당 보행도로 조성사업"에 대해 올해 11월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계약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해 내년 상반기 공사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서산동 보리마당 구역 내 지역 특성 및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광장오피스텔 후면 ~ 유달동 행정복지센터 후면까지 길이 550m, 폭 4m 규격으로 보행자 전용도로를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이 보행자 전용도로에 국민들이 신청한 글을 각인할 예정이다.

목포시가 주개최지가 된 제104회 전국체전과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들의 자유로운 글을 신청받아 조성할 예정이다.

시는 비방 글, 정치적인 글 등을 제외한 2,023명의 글을 선정해 콘크리트 패널에 각인한다는 계획이다.

각인 글귀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12월 31일까지 35글자 내에 자유롭게 희망하는 글을 작성한 신청서를 목포시에 제출하면 된다.

참여방법 및 신청서 작성 등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목포시 도시재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배/기자

경북도, 2024년 전선지중화사업 광역지자체 중 최대 국비 확보!!

'24년도 정부 지원 규모(420억 원) 道 단위 최대 국비 66억 원 확보

경북도는 『2024년 그린뉴딜 전선지중화사업』공모에 6개 시군에서 8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4년간 총사업비 1,045억 원을 들여 전선지중화사업을 추진 중이며, 내년에는 정부 예산안 전국 420억 원 규모 중 광역자치단체 중 최대인 66억 원을 확보해 그린뉴딜 전선지중화사업을 추진한다.

그동안 경북도는 국비 확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등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을 방문해 사업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다양한 지역 현안 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이번 공모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린뉴딜 전선지중화사업은 한국판 뉴딜종합계획에 그린뉴딜분야 세부 추진 과제로 학교 주변 통학로, 전통시장, 도시재생구역, 노후 산단 주변 전력선 및 통신선을 공동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국비를 지원한다.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8개 시군에서 13개소를 신청해 10월 최종 6개 시군 8개소(학교통학로 7개소, 도시재생 1개소)가 선정됐다.

투입되는 총사업비는 331억 원(국비 66, 지방비 108, 기타 157) 규모로 전체 3.73km를 지중화할 계획이다.

세부 사업으로 경주시 월성초 통학로(0.25km), 안강제일초 통학로(0.44km)에 60억 원, 안동시 북주여중 외 2개소 통학로(0.75km) 45억 원, 구미시 구미여중 통학로(0.33km) 64억 원, 영천시 완산로 도시재생(0.28km) 22억 원, 청송군 화목초 통학로(0.84km), 안덕중학교 통학로(0.62km) 112억 원, 칠곡군 인평초 통학로(0.22km) 28억 원의 총사업비가 투입된다.

시군에서는 내년 초 한국전력·통신사(SKT, LG U+, KT 등)와 전선지중화 협약을 체결하고 2년간 사업을 시행한다.

도로 등에 설치된 전주 및 각종 전선, 통신선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와 보행자 등의 교통 장애, 자연재해 사고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및 안정성을 확보하여 도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장상길 경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전선지중화사업이 최대 국비 확보라는 성과를 거뒀으나, 앞으로도 많은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며"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사업과 향후 신규 추진사업 등 보다 면밀히 대응해 지역에 많은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대구시, 페트병의 놀라운 변신, 대덕문화전당'쓰임과 버림 사이에서'업사이클링(새활용) 전시개최

대덕문화전당 문화예술아카데미'쓰임과 버림 사이에서'개최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이 재활용 소재인 페트병을 이용하여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한 업사이클링(새활용) 전시 '쓰임과 버림 사이에서(부제:모두의 행복)'를 오는 11월 4일(토)부터 11일(토)까지 제2전시실에서 개최한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2023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 강화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쓰임과 버림 사이에서'의 결과물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간 허태민, 김필옥, 신현지 강사의 지도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가한 43명의 시민들은 주재료인 페트병을 직접 가져와 색을 입히고 빛을 활용하기 위한 재료를 더해 각자의 개성이 묻어나는 작품으로 업사이클링(새활용)하였으며 나아가 환경보호를 위한 염원을 담아 행복한 지구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본 전시를 준비했다.

특히'쓰임과 버림 사이에서'는 가족 및 친지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한 통합교육과정으로 운영되어 눈길을 끈다.

참여자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벽을 허물고 오직 작품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며 함께하기에 빛나는 우리를 생각하는 등 교육 이상의 값진 시간을 쌓았다.

이처럼'쓰임과 버림 사이에서(부제:모두의 행복)'전시는 문화예술교육과 작품 전시라는 예술 행위까지 연계한 프로그램이자 전 지구적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일깨우는 프로젝트로 더욱 의미가 깊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함께 만든 작품을 전시하고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소재를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킨 이번 전시를 통해 문화 예술 향유와 환경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11월 4일(토)부터 11일 토요일까지 대덕문화전당 제2전시실에서 열릴 쓰임과 버림 사이에서(부제:모두의 행복)'는 별도의 예약 없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매일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 운영된다.

김동현/기자

부산시, 2023년 부산 워라밸 페어 개최

11.6.~11.11. 2023년 부산시 워라밸 주간 운영

부산시는 11월 6일부터 11일까지를 2023 워라밸 주간으로 지정하고,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으로 '워라밸 행복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2023 부산 워라밸 페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 올해 6회를 맞이한 부산 워라밸 페어는 11월 둘째주 부산 워라밸 주간을 맞이해 기업 문화 개선과 시민 인식 향상으로 일생활균형 제도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워라밸 페어는 부산시와 부산고용노동청이 주최하고, 부산일생활균형 지원센터와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부산경영자총협회가 주관한다.

먼저, 오늘(6일) 오후 2시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워라밸 주간 기념식이 열린다. ▲워라밸 우수기업 시상식 ▲일생활 균형 슬로건 선포식 ▲워라밸 토크쇼 등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송숙희 여성특별보좌관의 기념사에 이어, 직장 내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워라밸을 실천해 온 모범기업 6개사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된다.

"내 일(My job)이 행복한 부산, 내일(Tomorrow)이 기대되는 부산"을 다음 연도 슬로건으로 선포하고, 워라밸 대표기업·청년·아빠 대표 등 시민과 함께하는 워라밸 토크쇼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부산 출신 조진웅 배우가 행사를 알리는 홍보 영상을 만나볼 수 있다.

이어, 워라밸 문화 확산을 위해 ▲워라밸 영화 토크쇼 ▲일생활 균형 포럼▲문화공연 등 시민과 함께하는 워라밸 페어 주간 행사도 다채롭게 개최된다.

7일에는 영화의 전당에서 단편영화 상영 및 평론가 등 부산 셀럽과 함께하는 '워라밸 영화 토크콘서트가, 8일에는 일생활균형 실천기업 방문 후, 워라밸 특별 강연이 있으며, 9일에는 '일하고 싶은 직장문화, 어떤 제도가 필요할까요?'라는 주제로 '제1회 일생활 균형 포럼'이 열리며, 10일에는 서면 젊음의 거리에서 '나도 가수다! 직장인 밴드 공연'이 열린다.

이 외에도 온라인을 통해 '아빠 육아 영상 공모전', '2023 워라밸 페어 응원 이벤트' 등이 준비돼 있으며, 부산 워라밸 페어 누리집을 통해 실시간으로 주요 행사에 참여가 가능하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기업과 시민들의 워라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일과 생활의 조화로운 삶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시책 확대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함께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워라밸 대표도시 부산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1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1년 기준 일생활 균형 지수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지자체의 제도 홍보가 잘 되고 있고, 관련 조직과 조례가 뒷받침되는 등 지자체 관심도 영역에서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희태/기자

'청송사과축제'대한민국 대표축제 진면목 과시

제17회 청송사과축제가 수많은 인파가 몰려 대성황을 이룬 가운데 지난 11월 5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용전천 현비암 일원에서 11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5일간 개최된 제17회 청송사과축제에는 구름과 같은 인파 42만 여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축제인 '문화관광축제'다운 면모를 선보였다.

축제장에 구름인파가 몰리면서 자연히 축제는 활기를 띄었고, 각종 체험 홍보 부스, 사과판매 부스, 식당 등에도 문전성시를 이루며 지역 소득창출과 경제활성화의 효과를 톡톡히 봤다는 평가다.

'청송사과, 찬란한 금빛 향연'이라는 주제로 선보인 이번 청송사과축제는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온라인 축제를 병행하여 방문자수 39만 명, 참여자수 16만 명을 기록(※11월 5일 10:40 기준)하며 온라인 축제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공을 거두었다.

청송사과축제의 대표 프로그램 중 하나인 '청송꽃줄엮기 전국 경연대회'에는 청송군 관내 8개 팀과 그 외 전국 7개 팀, 총 15개 팀이 참가하여 풍성한 볼거리를 만들었고, 개군 600주년을 기념한 청송도호부사 퍼레이드와 청송사과 퍼레이드 그리고 풍물경연대회 등은 8개 읍면 주민 화합의 장이 됐다.

아울러 청송황금사과배 전국고교장사씨름대회, 내고장 청송 알기 퀴즈대회, 청송낙동정맥등반대회 등 다채로운

연계행사를 통해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 냈으며, 청송사과, 사과요리, 사과가공품 등을 전시 판매한 210평 규모의 사과 홍보관을 비롯한 258개동의 부스에서 다채로운 체험과 색다른 경험을 선물해 호평을 받았다.

특히 지난 4일 예상보다 많은 비에 윤경희 청송군수를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직접 축제장 정비에 발 벗고 나서 축제장을 안정화 시켰고, 이에 많은 관광객은 대한민국을 대표할만한 축제 운영의 면모를 보여주었다며 찬사를 보냈다.

또한 이번 청송사과축제는 사과 꼭지를 치지 않음으로써 농가의 인건비 절감과 과실 신선도 향상 효과가 탁월한 꼭지 무절단 사과판매를 통해 소비자들은 더욱 신선한 사과를 맛볼 수 있었고,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청송사과의 차별성과 우수성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무엇보다 올해 청송사과축제는 바가지요금 및 불공정 상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 운영과 더불어 축제추진위원을 통한 부스 현장 평가 제도를 시행하여 후한 인심과 정이 넘치는 축제장을 만들어 냈다.

한편, 윤경희 청송군수는 "더 많은 관광객들에게 사랑받고 다양하고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청송사과축제가 되도록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청송사과축제를 방문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윤근수/기자

영양군, 2023-2024절기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 실시

XBB기반 신규 백신, 지금 유행하는 바이러스에 효과적 대응

영양군은 10월 19일부터 2023-20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하여, 금일까지 군민 1,011명 대상 접종을 시행했다.

이전과 달라진 '2023-20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기존 접종 이력과 관계없이 24년 3월 29일까지 1회만 접종하면 된다. 현재 변이에 맞춘 신규 백신(XBB 기반)으로 기존 백신에 비해 최대 4배 효과가 높다. 전 연령이 접종 가능하며, 면역력이 취약한 65세 이상 어르신은 권고 대상군에 속한다.

영양병원은 월~금요일 접종이 가능하나,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접종 요일이 상이하여 방문 전 문의 바라며, 접종 이상반응 관찰 시간 소요에 따라 접수 시간이 오전 11시, 오후 3시에 마감된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은 65세 미만에 비해 중증화율이 약 21배, 치명률은 약 40배 높아 연령이 높아질수록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 사망 위험이 높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므로, 동절기 접종까지 완료한 어르신도 신규 백신을 맞을 것을 권고한다.

장여진 보건소장은"겨울철 재유행이 다가오는 시점에 올해 유행하는 xbb 변이 감염으로 인한 중증 사망 최소화를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은 꼭 접종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의성군, 6.25참전용사에 화랑무공훈장 전수

의성군은 1일 의성문화회관에서 6.25 참전용사 故전주호 일병의 유족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전수했다.

故전주호 일병은 1950년 군에 입대하여 평안남도 성천지구 전투에서 전사한 자로서, 당시 그 공을 인정받아 6.25전쟁 당시 훈장수여가 결정됐으나 훈장을 전달받지 못하다가 국방부의 '6.25전쟁 무공훈장 주인공 찾기' 사업을 통해 약 73년 만에 유족에게 전달됐다.

화랑무공훈장은 대한민국 4번째 무공훈장으로 전투에 참가해 용감하게 헌신하거나 분투하는 등 보통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거나 여러 전과를 올려 그 공적이 뚜렷한 유공자에게 수여하는 무공훈장이다.

이날 훈장을 받은 故전주호 일병의 아들 전수원님은 "돌아가신 아버님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지금이라도 훈장을 전수 받아 기쁘다."라고 말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화랑무공훈장을 전수할 수 있어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라며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기 위해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정금자/기자

경북도, 외국인 유학생 1만 명 유치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도내 26개 대학 참여, 우수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대학 글로벌인재 담당자 회의 개최

경북도는 11월 6일 대구대학교 성산홀에서 도내 대학 글로벌 인재 유치 담당자들과 함께 외국인유학생 유치지원 업무간담회를 개최했다.

경북도는 외국인유학생 1만 명 유치를 위해"Come to Korea, Study in Gyeongbuk!"을 슬로건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도의 신규정책과 외국인 비자 정책 등을 안내했다.

또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직접 뛰고 있는 대학 담당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 사항 등을 청취했다.

경북도는 우수 해외인재 유치를 위해서는 관계기관이 협업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도-지역대학-지역기업-유학원-각국 대사관까지 함께하는 'K-드림 협업체'구성 방안을 설명했다.

이를 통해 각 기관 간 유기적 협업체계를 강화해 해외유학생 1만 명 시대를 만들어 나가고, 더 나아가 입국-교육-지역 정주의 외국인 지역 정착 프로세스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외인재 특화형 교육국제화특구를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K-U시티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산업기반 인재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희망하는 지역의 중견.중소.뿌리기업과 연계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지역특화형 비자를 제공하는 '해외유학생 계약학과'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경북학 강의 개설을 지원하여 경북지역의 이해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단순한 이론 수업이 아니라 현장 위주의 교육을 통해 경북의 역사.특성.산업.문화 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 경북에 대한 친근감과 정체성을 더 높이면 졸업 후 해외유학생들의 경북 정주 비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허윤홍 경북도 교육협력과장은 "지역대학은 인구감소 및 수도권 선호 현상으로 인해 학생 충원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해외의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대학에 입학하고, 나아가 지역의 인재가 된다면 경북의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라며

"지역대학과 협업해 적극적인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책을 펼쳐 경북의 외국인 유학생 1만 명 시대를 반드시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가치'…영주시 사회적경제 플리마켓 '참즐마켓'

서천 둑방길에는 감성로드, 공유플랫폼에는 팝업동물원 '영ZOO' 포토존 설치

영주시는 10일부터 12일까지 삼판서 고택 아래 소공연장 일원에서 사회적경제 플리마켓 '참즐마켓'을 개최한다.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가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시민들에게 사회적경제를 알리고,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한 제품과 서비스 등을 홍보·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관으로 진행된다.

행사 기간 오전 11시부터 16시까지 영주시 사회적경제기업들과 지역에서 활동 중인 소상공인 및 셀러 20여 팀이 함께하는 플리마켓을 통해 제품 홍보 판매를 진행한다.

특히, 11일(토요일) 오후 1시에는 '어린이 공유시장'에서는 어린이 셀러들이 사용하지 않는 장난감, 옷 등을 판매해 자원 순환과 공유경제에 대해 경험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

부대행사로는 어린이들을 위한 버블쇼, 마술, 댄스 공연과 현장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돼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장으로 만들어 갈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행사장 인근 서천 둑방길에는 완연한 가을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문구로 꾸며진 '감성로드'가 조성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위치한 공유플랫폼(중앙로 7)에서는 종이 동물들로 꾸며진 팝업동물원 '영ZOO'를 콘셉트로 포토존을 운영해 색다른 재미와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영주시 사회적경제기업과 제품들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안동시, 장기지구·온혜지구 지적재조사 경계설정 완료 '불일치 지적 손봐'

안동시가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도산면 온혜지구(703필지, 793,336㎡)와 북후면 장기지구(1,985필지, 2,741,331㎡)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해 경계설정을 완료했다.

해당 지적재조사지구는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불일치하는 지역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에 사업예정지구로 지정해 주민설명회를 거쳐 토지소유자의 2/3 이상 동의를 받고 사업이 추진됐다. 이번 지적재조사로 토지현황조사를 기초로 토지소유자 간 합의된 경계와 실제 이용현황에 맞춰 설정된 경계에 임시경계점표지를 설치하면서 경계설정을 완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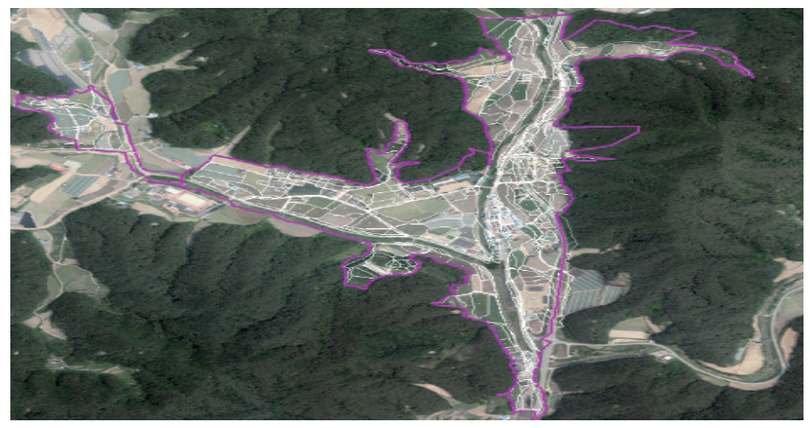
이에 지적재조사측량을 통해 새로이 설정될 경계를 기준으로 작성된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이달 중 통지할 예정이다.

지적확정예정조서는 재조사측량 전·후의 경계와 면적 등이 기재되어 변동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으며, 지적확정예정조서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안동시청 토지정보과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는 토지소유자 간 합의경계가 있거나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계를 재조정할 수 있으며 안동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안동시 유창원 토지정보과장은 "바쁜 와중에도 경계협의와 사업추진에 협조해주신 토지소유자께 감사를 드리며,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와 맹지해소 등 토지의 가치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지적재조사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주시,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위해 4000만원 들여 집수리

市, 천북면 주택 거주 A씨 가족 위해 3주간 옥상방수, 창호, 문 교체, 화장실 전면수리, 씽크대, 도배 장판 교체 등 대대적 수리

경주시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사업비 4000여 만원을 들여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실시했다.

6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는 천북면 주택 거주 A씨 가족은 장애 및 중증질환으로 경제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과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가사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경주시 희망복지지원팀은 대책을 강구한 끝에 기초수급자 선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키고,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치료를 재지원하며 사회복귀시설 이용을 도왔다.

또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경상북도 종합자원봉사센터 집수리지원사업(The 행복하우스)과 연계해 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A씨의 주택이 대상주택으로 선정되면서 3주간 옥상방수, 창호, 문 교체, 화장실 전면수리, 씽크대 교체, 도배 장판 교체, 마당 우사 및 재래식 화장실 철거, 담장공사 등의 대대적인 집수리를 진행할 수 있었다.

경주시는 이번 집수리사업 연계로 A씨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가사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생활이 안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및 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 관계자분들을 비롯해 집수리를 위해 도움 주신 여러 봉사단체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경주시는 적극적인 복지사각지대발굴을 통해 안전하고 살맛나는 복지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주시 희망복지지원팀은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고난도 사례대상자를 위주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으며, 현재 13세대를 집중케어하고 있다.

윤타용/기자

예천군, 본격적인 산불 예방체제 돌입!

'산불 없는 청정고장' 목표로 결의 다져

예천군은 2023년도 가을철과 내년도 봄철 산불조심 기간 '단 한 건의 산불도 없는 산불 청정고장'을 목표로 가을철 산불 예방 총력전에 돌입한다.

군은 산불 전문예방진화대원 25명, 산불감시원 86명 등 총 101명의 산불 인력을 투입해 산림인접지 100m 내 지역에서 농산폐기물이나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 단속·계도, 진화 활동 등을 중점 추진한다.

이에 따라 읍면을 포함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산불 취약지 및 취약자에 대한 계도활동 강화를 비롯해 입산통제구역 지정, 산불방지대책 수립 등 종합적인 예방체계를 마련하고, 특히 인력투입이 어려운 산불감시 사각지대에는 무인감시카메라, 드론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발생 Zero'를 목표로 산불예방 및 진화용 헬기를 사전 임차해 현장에 배치하고 산불 발생 시 초동 진화를 위해 등짐펌프·무전기 등 진화 장비를 확충한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군부대 및 유관기관, 민간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대대적인 예방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정치영 산림녹지과장은 "산불 예방활동 강화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봉화군, 국역 임자일록 책자 발간

1792년 사도세자의 복권을 주청한 영남 만인소의 과정 상세히 담아

봉화 청량산박물관은 1792년 사도세자의 복권을 주청한 영남 만인소의 과정을 상세히 담고 있는 '임자일록壬子日錄' 국역서 책자를 발간했다.

1792년 사도세자 신원 만인소는 당시 영남지역 유생 10,057명이 연명해 올린 최초의 만인소로 그 규모나 정치적 성격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간 1792년 만인소는 조선왕조실록, 일성록, 승정원일기 등의 정사와 여러 문집의 기록을 통해 진상이 어느 정도 밝혀졌으나, 만인소 작성의 자초지종과 그 당시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많지 않아 그 실체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발간하는 김희택 후손가 소장의 임자일록은 1792년 사도세자 신원 만인소의 과정을 일기 형식으로 자세히 기록한 글이다. 특히 1792년 만인소 관련 상소를 첨가해 그 내용의 이해를 돕고 있으며, 김희택의 행장과 행록을 첨부해 저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박물관 관계자는 "임자일록 국역서 발간을 계기로 조선 정조 재위기간의 정치사나 향촌사회사가 구체적이면서도 다차원적으로 복원되고, 우리 봉화지역의 문화적 특수성과 정치적 위상이 재조명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정체성을 세우고 알려나가는 일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봉화군

경북도, 미래의 뷰티 전문가를 꿈꾸시나요? 출발선은 이곳에서…

경상북도지사배 뷰티테라피 경진대회 개최, 차세대 우수전문 미용인 등용문

경북도는 11월 4일 구미코에서'2023년 경상북도지사배 뷰티테라피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올해 13회째 개최하는 이번 대회에는 업계 종사자 등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선수들은 최신 피부미용 트랜드를 접목해 그간의 갈고 닦은 역량을 선보였다.

뷰티테라피 경진대회는 뛰어난 실력을 갖춘 우수 미용 전문가 양성과 발굴을 위한 등용문이자 새로운 기술 습득과 정보 교류의 장으로 경북 뷰티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으며, 올해는 네일케어 아트 분야도 더해져 관람객의 시선을 끄는 등 볼거리 또한 풍성했다.

현대사회는 의학 및 과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기대수명이 높아지고,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지속적인 미의 추구와 자신을 가꾸는 것에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는 시대로 뷰티미용산업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대표적인 블루오션 산업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K-뷰티를 필두로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된 K-culture, K-pop과 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K-푸드 등 문화강국의 표상이 되고 있다. 더불어 여성의 활발한 사회진출과 경제력 향상, 개인의 취향을 반영한 소비 트렌드(me economy) 등 주요 소비 타켓층의 다변화와 유행 선도력을 감안할 때 뷰티산업 발전 가능성은 무한하다.

이에 경상북도는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글로벌 뷰티산업의 시장성과 잠재력을 조망하고 경산시에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를 구축, 화장품 산업을 육성하는 등 뷰티미용 산업 활성화를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

이날 대회에는 10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9개 종목(페일셜, 바디, 특수, 속눈썹 연장, 왁싱 등)에서 치열한 경기를 펼친 결과 일반부, 바디부문 대상 최주하, 얼굴부문 대상 TRAN THI KIM CHI, 왁싱부문 대상 최라영, 대학부, 바디부문 대상 김은영, 특수부문 대상권한겸, 속눈썹부문 대상 김지윤, 고등부, 왁싱부문 대상 남연우 등 11명이 경상북도지사 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황영호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는 개인적으로 젊음과 경쟁력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그 파급력은 관련 산업의 확장과 고도화까지 이른다. 이번 대회를 통해 피부 미용인들의 기술력 향상은 물론 경북의 뷰티서비스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동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윤근수/기자

영덕군 발달장애인들, 생애 첫 작품전시회 오픈식 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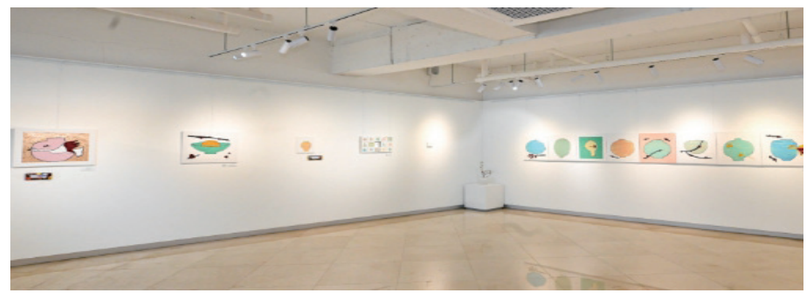
영덕군장애인보호작업장은 지난 3일 리브포레스트 갤러리에서 영덕군 지역 발달장애인들의 생애 첫 추상화 작품전 '십일월, 내 마음을 물들여 - SHOW MYSELF' 전시회 오픈식을 개최했다.

문찬송 피아니스트의 피아노 연주로 문을 연 이날 행사는 작가 소개, 전시회 개최 취지 설명, 작품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으며, 장소 대관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후원과 관심을 바탕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 함께한 김광열 영덕군수는 "지역의 발달장애인들의 첫 작품전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들의 열정과 예술혼이 담긴 작품을 많은 분이 감상하고 함께 그 감동을 나눌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작품전시회는 영덕읍 리브포레스트 갤러리에서 오는 15일까지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으며, 발달장애인 작가 15명의 개별 및 합동 작품과 플루이드 아트 등 2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장문화/기자



울진 동서트레일 걸으며'숲의 We로'받으세요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동서트레일 55구간에서 트레킹 행사

울진군은 오는 10일 동서트레일 55구간 일원에서'숲의 We로'행사를 개최한다.

'숲의 We로'는 작년 울진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행사로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가 주관하고,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진행한다. 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울진군 주민들의 심리적·신체적 회복에 기여하고 더불어 동서트레일 55구간에 대한 관심도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

행사가 진행되는 55구간은 산포리 망양정~하원리 중섬교까지 이어지는 총 20km의 숲길이다. 해당 구간은 동서트레일의 시점이자 종점으로 동서트레일의 가장 상징적인 구간이다. 55구간은 우리금융그룹의 기부금을 통해 만들어져 우리금융길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숲의 We로'는 트레킹 활동을 포함해 숲멍, 아로마 테라피, 차담 등이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동서트레일 조성 이후 처음 개최되는 행사인 만큼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앞으로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장문화/기자

부산시, '서부산행정복합타운(제2시청사)' 착수식 개최

11.6. 14:30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서부산행정복합타운 착수식 개최

박형준 부산시장이 사상공단을 4차 산업혁명 중심의 미래도시인 '사상드림스마트시티'로 변모시킬 사업 현장을 찾는다.

부산시는 오늘(6일) 오후 2시 30분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서부산행정복합타운(제2시청사) 착수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안성민 시의회 의장, 장제원 국회의원, 조병길 사상구청장, 시·구의원, 콘텐츠기업·협회 관계자와 기업인 대표로 사상기업발전협의회 이정림 회장, 정운진 ㈜J&Company 회장, 정숙기 ㈜금양 전무 등 4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착수식을 시작으로 사상드림스마트시티 부지에 건립을 추진할 '서부산행정복합타운'에는 부산시의 발전을 책임질 다양한 기관들이 입주할 예정이다.

디지털전환을 주도할 부산시의 핵심 경제진흥기구인 ▲'테크노파크' ▲'경제진흥원' ▲'부산신용보증재단'을 이전 배치하고, 동서 균형발전을 총괄하는 시 본청 ▲'도시균형발전실'과 정보화 기구인 ▲'데이터센터', 부산의 싱크탱크인 ▲'부산연구원'을 이전한다.

또한 게임, 영상 콘텐츠 등 국내 콘텐츠 기업 260여 개를 집적하는 ▲'디지털 기업지원 복합센터'가 함께 들어서 서부산의 행정중심 허브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사업'은 노후돼 경쟁력이 약화된 사상공단을 재정비해 부산의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이다. 그동안 사업비 확보 등 사업추진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지만, 2009년 사상공단이 재생사업 지구로 선정된 이후 14년 만에 사상드림스마트시티의 중심 허브인 '서부산행정복합타운'을 건립하게 돼, 혁신성장 거점 마련의 출발점에 섰다.

사상공단은 그간 산단 재생 기반 마련을 위해 도로확장, 도시철도 건설 등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환경개선을 위한 '분뇨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부족한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엄궁유수지 문화체육센터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업종고도화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지식산업센터' 3곳*이 건립 또는 건립 중이다.

이외에도 2020년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는 '산업단지 상상허브'의 활성화 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다.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되면 문화, 편의시설, 상업, 주거 등 일과 삶과 문화가 공존하고 사람이 모여드는 지역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날 박형준 부산시장은 착수식 참석에 이어, 오후 3시 20분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분뇨처리시설 현대화사업장을 방문해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정주환경 개선사업 현장을 직접 챙긴다.

위생사업소로 불리는 분뇨처리시설은 정화조 및 재래식 화장실 분뇨가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기 전 1차 처리를 하는 시설로 1973년도에 개소해 현재까지 50년째 운영 중이다.

현재 운영 중인 분뇨처리시설은 외부에 노출돼 분뇨처리 시 발생하는 악취로 주변 지역주민들에 불편을 주고 있고 내구연한도 초과해 시설물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지난 2016년 부산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시설물 신설 필요성이 제기돼 현대화사업이 추진됐고, 타당성 조사, 2019년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지난 2020년 11월에 착공했다.

총사업비 1,003억을 투자해 2024년 연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하에는 분뇨처리시설을 상부에는 관리동과 체육시설을 조성해 지역주민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한다.

이날 현장에서 박형준 시장은 공사 진척상황을 보고 받고, 추진사항을 꼼꼼히 챙기면서 관계자들에게 분뇨처리시설 지하화를 통해 그간 분뇨처리 시 악취로 고통받던 지역주민에게 하루빨리 쾌적한 정주환경으로 보답하고자 공정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서부산행정복합타운' 건립을 시작으로 국가 발전의 대들보 역할을 해온 사상공단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산업혁신거점 지역으로 발전시켜 4차 산업혁명 중심의 미래도시, 사상드림스마트시티로 새롭게 변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 시장은 "분뇨처리시설을 현대화사업 추진도 차질 없이 진행해 그간 악취로 피해받던 지역주민의 불편을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희태/기자

포항시, 경북도와 함께 배터리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추진에 총력

포항시가 경북도와 함께 국내 최초로 국제 기준에 맞는 전면적 최소 규제(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에 도전장을 던지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미래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 실증, 인증, 허가, 보험까지 글로벌 기준에 맞는 제도와 지원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특구를 신청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거쳐 12월 중으로 지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글로벌 혁신특구는 국내 최초로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 새로운 기술에 대한 법령, 기준 등이 없거나 부적합하더라도 모든 실증이 허용된다. 국내의 거미줄 같은 규제에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는 돌파구가 될 수 있어 전국 14개 지역에서 치열하게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경북도는 포항시를 거점으로 혁신특구를 유치해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글로벌 기준을 수립하고 네거티브 규제를 통해 이차전지 원료·소재 공급망 안정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최근 중국이 12월부터 이차전지 음극재의 핵심원료인 흑연을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이차전지 원료·소재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업계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공급망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언제든 세계 주요국의 분쟁에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배터리 재활용·재사용을 통한 실증, 인증, 허가가 가능한 혁신특구 지정은 이차전지 공급망 안정에 기여가 가능할 전망이다.

세계적으로 전기차 판매가 급증하면서 사용후 배터리 시장이 급성장 추세로, 포항시는 기존 배터리 규제자유특구를 한 단계 발전시켜 글로벌 진출까지 원스탑으로 지원하는 혁신특구 유치로 다음 스텝을 밟아나간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지정된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해 글로벌 혁신특구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포항에는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등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30여 개의 기업들이 영일만산단과 블루밸리산단에 입주해 생산을 시작했으며, 독보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며 4년 연속 우수 특구로 지정된 바 있다.

또한 환경부의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와 인라인 자동평가센터, 산업부의 고안전 보급형 리튬인산철(LFP) 상용화 기반구축사업을 유치해 배터리 자원순환의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특구실증을 기반으로 환경부, 산업부의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 등급분류, 매각 및 재사용·재활용 기준 등 관련 법령 6건을 정비해 사용후 배터리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추가 실증과 사업화 지원을 위해 거점공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모아지면서 시와 도는 과감하게 지방비 107억원을 투입해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다.

포항시와 경북도는 이같은 규제자유특구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규제특구의 연장선에서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혁신특구에도 도전해 배터리특구의 결실을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윤타용/기자

'2023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대구 국제포럼'개최

기후위기 시대, '창의도시의 역할'을 알아보다

대구광역시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간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2023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대구 국제포럼'을 11월 9일부터 2일간 개최한다.

2017년 10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이후 매년 대구 주도의 국제포럼과 공연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기후위기와 창의도시의 역할'을 주제로 전문가 세션, 창의도시 관계자 사례발표, 북성로 문화투어, 오페라 갈라 공연 등 다채로운 구성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이회성 IPCC 전 의장 및 무탄소에너지 특임대사와 신규 음악창의도시로 가입한 베트남 달랏 당 쿠앙 투 시장, 이탈리아 페사로 다니엘레 비미니 부시장 등 해외 8개 유네스코 창의도시 관계자 및 전문가와 국내 8개 유네스코 창의도시 공무원 등이 대구를 찾는다.

이 행사는 급변하는 기후와 그로 인해 극심한 가뭄과 대형 홍수 같은 기후재난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따라 전 세계적 화두인 '기후위기'를 주제로 유네스코 창의도시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공론화하는 장으로, '기후행동과 유네스코 창의도시의 역할'을 중심으로 전문가 발표, 유네스코 창의도시 관계자 사례발표 및 패널토의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북성로의 공구들과 다양한 물품으로 만든 업사이클링 창작 악기를 활용해 관객들과 함께 공연을 꾸미는 'HOOLA'의 특별공연으로 포문을 연다. 기후위기를 주제로 파이프 오르간, 샴푸통 신디사이져 등 각종 재활용 물품으로 직접 제작한 악기를 사용해 의미 있는 공연을 펼쳐 보일 예정이다.

특히, 에너지 및 기후변화의 세계적인 석학인 이회성 IPCC 전 의장 및 무탄소에너지 특임대사가 기조발제를 한다. 이어서 이탈리아 페사로 다니엘레 비미니 부시장과 유네스코 본부 데니스 백스 문화국장의 전문가 발표가 이어진다.

이와 함께, 스페인 이리아, 인도네시아 암본 등 해외 10개국 8개 도시의 유네스코 창의도시 관계자들의 각 도시별 기후위기 사례발표가 진행된다.

행사 말미에는 올해 대구국제오페라축제 20주년을 기념해 특별히 오페라 갈라 공연이 개최된다. 모차르트의 명작 오페라 '마술피리'의 음악을 선별하고 스토리를 각색해 기후행동과 환경보호에 경각심을 울리고자 기획됐다.

지역을 대표하는 김건이 디자이너와의 협업으로 기존 무대의상 재활용 및 업사이클링 소품을 사용하고, 공연배경으로 음악 창의도시 캐나다 런던 페데리코 페리아네즈 작가의 미디어아트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10일 진행되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워크숍은 창의도시 간 협업을 위해 구체적이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국외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관계자와 국내 창의도시 담당자 간 미팅을 통해 실질적인 협업 사업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 밖에도 북성로 일대 공간들을 중심으로 음악창의도시 대구를 대표하는 지역 예술인들의 다양한 공연들이 이어지는 북성로 문화투어, 이상화·서상돈 고택 등 주요 관광지와 제20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 오페라 어워즈 관람도 이어진다.

윤근수/기자

기능 더하고 화재 줄인다…영등포구, 현장에서 답 찾은 '담배꽁초 수거함' 설치

식당, 주점 등 밀집 지역 60곳, 담뱃불을 끌 수 있는 '담배꽁초 수거함' 설치

영등포구가 담뱃불을 끌 수 있는 기능이 더해진 '담배꽁초 수거함'을 신규 설치한다고 밝혔다.

완전히 꺼지지 않고 버려지는 담뱃불은 수거함 안의 휴지, 담뱃갑 등 쓰레기로 옮겨붙어 화재를 야기한다. 또한 수거함 위에 각종 쓰레기가 쌓여 있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악취를 유발하고 있다.

이에 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담배꽁초 수거함 실태조사에 나섰다. 현장을 살펴보며 구민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화재로부터 안전한 수거함 설치를 위해 개선 방안을 고민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구는 지난달 '담뱃불 끄기' 기능이 더해진 '담배꽁초 수거함'을 당산동 일대 식당 밀집 지역에 시범 설치했고, 상인과 구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상부 전면의 꽁초 투입구 사이로 타공판을 설치해 담배를 비벼 끌 수 있게 했다. 꽁초 투입구는 일반 쓰레기는 제외하고 담배꽁초만 들어갈 정도의 좁고 동그란 구멍으로 제작됐다. 또한 투입구 상단은 곡선으로 만들어져 캔, 병, 일회용 컵 등이 쌓이는 것을 방지한다.

구는 연말까지 동 주민센터, 외식업중앙회 등의 수요조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음식점, 주점, 직장 등이 밀집한 60곳에 '담배꽁초 수거함'을 새롭게 설치한다. 추후 구는 설치 효과를 모니터링한 후 수거함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구는 무분별한 담배꽁초 무단투기 방지와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거리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담배꽁초는 화재와 빗물받이 막힘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유해 물질이 하수도를 따라 들어가 환경을 오염시켜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라며 "현장을 점검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행정'으로 구민 불편 해소와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박황신/기자

서대문구, 1인 가구끼리 모여 김장하고 지역사회에 나눈다

1인 가구원 20명 참여, 20kg씩 담가 절반 취약계층에 기부

서대문구가 이달 25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서대문여성이룸센터(백련사길 39)에서 '1인 가구 김장하는 날' 프로그램을 연다.

김장 비용과 과정에 부담을 느끼는 1인 가구를 위해 무료로 마련되며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됐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대면으로 개최된다.

관내 거주하는 1인 가구원 20명이 미리 준비된 절임 배추와 양념으로 각각 20kg씩 김장을 한다.

'함께 하는 김장, 함께 나누는 김장'이란 행사 캐치프레이즈처럼 자신이 만든 김치의 절반인 10kg을 취약계층에 기부해 의미를 더한다.

이 김치는 관내 저소득 홀몸노인과 중장년 1인 가구, 다문화가족 등에게 전해질 예정이다.

이성헌 구청장은 "참여자 분들이 직접 담근 김장 김치가 올겨울 어려운 주민들께 좋은 선물이 될 것"이라며 "1인 가구원을 포함한 모든 주민 분들의 행복 100% 서대문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은평구 응암1동, 한전MCS 후원 신간 도서 67권 전달식 개최

가을맞이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도서 기부

은평구 응암1동은 지난 2일 주민센터 내 문화의 집에 한전MCS 서대문은평지점이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90만 원 상당의 신간 도서 67권을 후원했다고 밝혔다.

한전MCS 서대문은평지점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분기마다 응암1동 주민센터와 협력해 나눔봉사를 실천하기로 한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맺었다. 올해 1분기에는 지역 홀몸어르신 90명에게 갈비탕을 대접했다. 2분기에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한 저소득 취약계층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에게 써큘레이터 9대(116만 원 상당)를 전달했다.

이번 3분기에는 가을맞이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도서 기부를 통해 후원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다.

김미수 한전MCS 서대문은평지점장은 "책 읽기 좋은 계절이 돼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책 읽는 즐거움을 제공하고, 미래를 꿈꾸길 바라는 마음으로 도서 기부를 결정하게 됐다"며 "아이들에게 필요한 도서를 선정해 기부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옥유관 응암1동장은 "먼저 분기마다 꾸준한 후원을 해주시는 한전MCS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미래세대의 아이들이 다양한 도서를 접함으로써 지식을 쌓고 풍부한 간접 경험을 갖출 기회를 주게 된 점에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금천구, 가장 혁신적인 행정에 투표해 주세요

11월 6일부터 15일까지 혁신행정 우수사례 10건에 대한 주민 온라인 투표 진행

금천구는 11월 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2023년 금천혁신어워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

'금천혁신어워드'는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 구현을 위한 분야별 혁신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조직 내에 확산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혁신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다.

대회에서는 ▲ 인공지능(AI) 안부든든서비스 도입 ▲ 어린이보호구역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제한 서비스 ▲ 제설 취약구간 도로열선 설치 ▲ 산림재해 '0', 국내 최초 스마트준설시스템 특허출원 ▲ 복지전문 비대면 1:1 상담 '금천복지톡톡' 등 10건의 혁신행정 사례가 열띤 경합을 벌일 예정이다.

온라인 투표에 나온 10건의 혁신행정 우수사례는 총 24건의 혁신사례 중에서 공무원과 금천구민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1차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온라인 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구민과 금천구 소재 직장인은 11월 6일부터 15일까지 누리집 '국민생각함'에서 '금천'을 검색한 후, 선호하는 사업 2건에 투표하면 된다. 홍보물의 정보무늬(QR코드)를 촬영하면 바로 투표할 수 있다.

금천구는 1차 심사 결과와 온라인 투표 결과를 합산해 최종순위(최우수1, 우수2, 장려 7)를 결정하고 포상할 계획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다양한 행정혁신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라며, "혁신 성과를 바탕으로 구민 편의를 위한 행정을 펼치겠다"라고 전했다.

박황신/기자

금천구
GEUMCHEON-GU

강원도 재난현장 숨은 주역, 지역자율방재단 경연의 자리 마련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재단연합회, 11월 4일 재난대응 방재기술 경연대회 개최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지역자율방재단의 재난 대응 능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11. 4 인제실내체육관에서 '재난대응 방재기술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18개 시군에서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등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위험지역 예찰 및 신고, 재난 발생 시 응급 복구, 이재민 구호 활동 등 재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7월 집중호우, 제6호 태풍 '카눈' 등의 재난에 대비하여 취약지역 예찰, 배수구 퇴적물 제거, 수해 쓰레기 청소 등을 실시하여 피해 저감 및 신속한 복구에도 많은 보탬이 됐다.

이번 경연대회에서는 그동안 습득한 방재기술 역량을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시군 간 자율방재단의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올해로 6회를 맞는 이번 경연대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재단연합회에서 주관하여 18개 시군 지역 자율방재단원 350여 명이 참여했으며 개회식, 경연대회, 화합의 시간, 폐회식 순으로 진행했다.

개회식에서는 지난 1년 간 지역 자율방재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쓴 18개 시군 단원들에게 지역 자율방재 역량 강화 유공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어서, 방재기술 경연대회에서는 모래마대 쌓기, 드론 운용, 심폐소생술 경연 등을 진행했다.

또한, 화합의 시간에는 번외경기 진행으로 모든 방재단원이 참여하여 화합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영상 축사를 통해 "지난 여름 집중호우·태풍에도 우리 도 자율방재단의 수고 덕분에 도민들이 무사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자율방재단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이번 경연대회가 자율방재단이 함께 화합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등원/기자

원주시, 농촌여성 실용교육·농업인 건강관리 교육생 모집

원주시 농업기술센터는 11월 6일부터 24일까지 2024년 농촌여성 실용교육과 농업인 건강관리교육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한다.

내년 1월 8일부터 3월 8일까지 2개월 과정으로 운영되며, 생활개선회원, 농촌여성, 농촌노인 등 교육 취약계층인 농업인을 우선 접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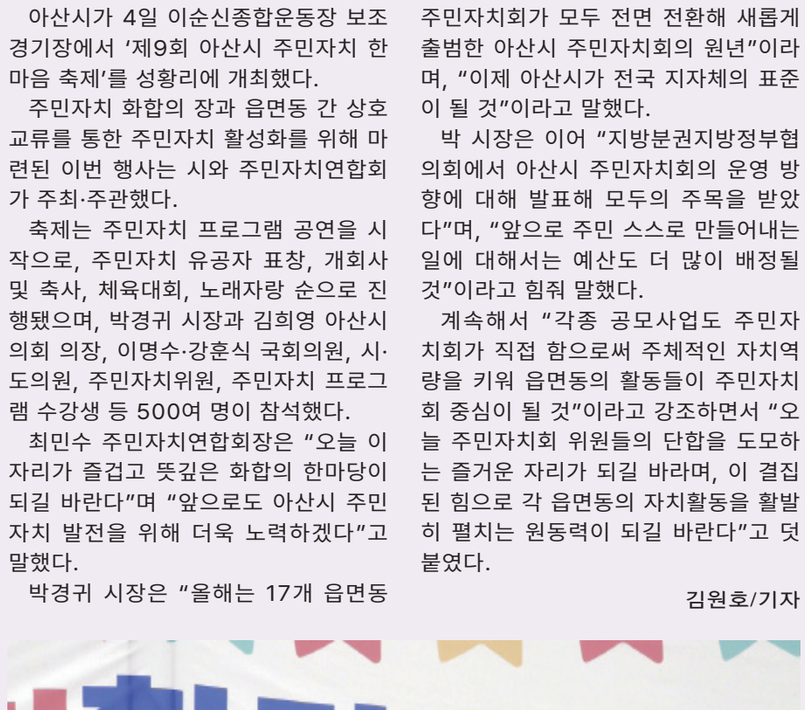
이번 교육은 농촌여성 실용교육 8개 과정 120명, 농업인 건강관리교육은 10개 과정 360명으로 총 480명의 교육생을 모집한다.

농촌여성 실용교육은 유선 접수하며, 농업인 건강관리교육은 생활개선회장 또는 마을 대표자가 관할 농업인 상담소로 일괄 신청하면 된다.

수강료는 무료로 과정별 소요되는 재료비만 교육생이 부담한다.

교육은 건강요리, 쌀베이킹, 떡제조기능사, 몸 펴기 운동, 다이어트 댄스, 장수춤, 우쿨렐레 등 18개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김정환/기자



충남도, 빈대 피해 예방 선제 대응 나선다

도, '빈대 대응 합동대책본부' 운영…다중이용시설 위생점검 등 추진

최근 전국적으로 숙박업소 등을 중심으로 빈대가 출현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피해 예방·대응을 위해 선제적으로 나섰다.

도는 6일부터 빈대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충청남도 빈대 대응 합동대책본부'를 운영한다.

현재까지 도내에서는 빈대 관련 피해 발생 사항은 없으나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빈대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만큼 도는 선제 대응을 통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합동대책본부 운영을 추진했다.

합동대책본부 본부장은 도 복지보건국장이 맡으며, 보건방역총괄반, 상황지원반, 살충제총괄반, 소관시설관리반, 언론대응반으로 구성했다.

합동대책본부는 앞으로 빈대 예방 홍보, 다중이용시설 위생점검, 방제·소독 지원, 콜센터 운영 등 빈대 대응 활동을 합동 추진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현황·실적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조대호 도 복지보건국장은 "빈대는 질병을 매개하는 해충은 아니지만 드물게 고열 및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만큼 다중이용시설 등의 철저한 위생·방역이 중요하다"라면서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과하다 싶을 정도로 실행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박경귀 아산시장 "아산시 주민자치회 '지자체 표준' 될 것"

4일, '제9회 주민자치 한마음 축제' 개최

아산시가 4일 이순신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제9회 아산시 주민자치 한마음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주민자치 화합의 장과 읍면동 간 상호 교류를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시와 주민자치연합회가 주최·주관했다.

축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공연을 시작으로, 주민자치 유공자 표창, 개회사 및 축사, 체육대회, 노래자랑 순으로 진행됐으며, 박경귀 시장과 김희영 아산시의회 의장, 이명수·강훈식 국회의원, 시·도의원,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생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최민수 주민자치연합회장은 "오늘 이 자리가 즐겁고 뜻깊은 화합의 한마당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산시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경귀 시장은 "올해는 17개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모두 전면 전환해 새롭게 출범한 아산시 주민자치회의 원년"이라며, "이제 아산시가 전국 지자체의 표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지방분권지방정부협의회에서 아산시 주민자치회의 운영 방향에 대해 발표해 모두의 주목을 받았다"며, "앞으로 주민 스스로 만들어내는 일에 대해서는 예산도 더 많이 배정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계속해서 "각종 공모사업도 주민자치회가 직접 함으로써 주체적인 자치역량을 키워 읍면동의 활동들이 주민자치회 중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단합을 도모하는 즐거운 자리가 되길 바라며, 이 결집된 힘으로 각 읍면동의 자치활동을 활발히 펼치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원호/기자

충북도,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비자 추천 사업 시행

11월3일부터 12월20일까지, 282명 모집·추천

충청북도는 생산인구 확보를 위해 장기간 근무로 숙련도가 축적된 외국인근로자를 장기 취업이 가능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추천하는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광역지자체 추천 제도'를 시행한다.

비자전환 신청대상은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등의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하고,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된 외국인근로자이며, 평균 소득 및 한국어능력이 각각 50점 이상으로 300점 만점에 200점 이상이면 E-7-4 비자로 전환되는데 지자체 추천 시 가점 30점이 부여된다.

도는 현재 기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중인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업의 추천을 받아 이중 282명을 법무부로 추천할 방침이며, 도지사 추천서가 필요한 외국인근로자는 12월 19일까지 기업 소재지 시군 담당 부서에서 신청하면 된다.

충북도 장기봉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은 "인구감소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정화/기자

태백시, 2023 추계 자원연합 학술대회 참가로 핵심광물 국가산업단지 조성 의지 다져

이상호 태백시장은 지난 2일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한국자원공학회, 한국암반공학회, 한국지구물리·물리탐사학회, 한국석유공학회 공동주최로 열린 '2023 추계 자원연합 학술대회'에 참석해 태백시가 정부의 핵심광물 확보 전략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석탄산업 종료에 따른 새로운 산업 유치·육성에 연구기관들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표명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핵심광물 확보와 수소시대 준비'라는 주제로 60여 년간 자원개발과 활용에 관한 많은 연구를 통하여 우리 경제의 눈부신 성장과 빠른 산업화에 기여한 한국자원공학회를 포함한 자원연합학회 소속 회원들이 연구 결과를 공유하며, 관련분야의 동향을 파악하는 등 역동적인 논의와 협력의 계기를 마련하는 장이 됐다.

특히,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주관으로 열린 특별세션에서는 '핵심 전략광물 확보 및 국내 가공처리 산업단지 구축'을 주제로 첨단산업용 핵심광물 확보기술 및 산업단지 구축전략, 첨단산업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광물자원 ESG전략, 희토류 제련 기술 동향,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광물자원 특례지위 부여방안, 핵심 전략광물 자립 확보를 위한 R&D 전략, 국내 핵심광물 가공처리 산업단지 구축 필요성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올해 5월 31일 태백시와 강원특별자치도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태백시가 내년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조기폐광에 따른 대체산업으로 추진 중인 정부주도 핵심광물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핵심광물에 대한 기술협력', '지속가능한 친환경 광산개발과 광해관리 기술 개발', '태백시 내 시범 연구사이트 운영', '핵심광물 관련 원천기술의 태백시 입주기업 우선제공'을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태백시의 성공적인 핵심광물 국가산업단지의 조성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학계와 산업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며, "태백시 또한 산학연 협력을 통한 핵심광물 확보 및 국가산업단지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상근/기자

충남도, 우수한 공간정보 활용 성과 전국에 알린다

도, 8~10일 일산 킨텍스서 열리는 '2023 스마트국토엑스포' 참가

충남도는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2023 스마트국토엑스포'에 '디지털 트윈국토 2차 시범사업' 우수 지자체로 참가한다.

디지털 트윈국토 2차 시범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비 7억 원을 포함, 총 14억 원을 투입해 '디지털 트윈 기반 문화재 보존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본 시스템은 도 지정문화재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3차원 가상 세계를 구축해 문화재 주변에서 건물 신축 등 개발행위가 이뤄질 경우, 사전에 가시권·조망권·적법성 등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정보(데이터) 기반의 합리적·객관적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다.

도는 이번 행사장에서 우수사례로 디지털 트윈 기반 문화재 보존 관리 시스템을 소개하고 주요 콘텐츠를 시연한다.

아울러 △도민에게 다양한 공간정보를 보기 편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구축 중인 '충청남도 공간정보 포털통합플랫폼 고도화(대민용)' △행정 데이터를 공간정보와 융복합한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전국 최초로 드론 영상 실시간 공유체계를 구축해 재난·안전사고·행사 등에 대응하는 '드론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도 알리고 직접 시연하며 자세하게 소개할 예정이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이번 전시회에서 충남의 공간정보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면서 "미래산업의 기초가 되는 위치기반 정보 구축을 선도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함안군, 우수기업인 및 모범근로자 표창 수여

함안군은 6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사관계 증진에 기여한 우수기업인과 모범근로자 등 4명을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다.

신기술개발, 고용증대, 노사협력, 대규모 투자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공헌에 기여한 기업인에게 수여되는 우수기업인상에는 폐기물 재활용 업체로 함안의 폐기물 재활용과 환경개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기여한 ㈜주일에코텍 박준규 대표이사, 수출용 자동차 부품 전문가공업체회사로 2007년 12월 함안 칠서공단으로 확장 이전하여 지역과 함께 상생 협력,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에쓰엠씨코리아(유) 권동호 대표이사가 선정됐다.

우수기업인상에 선정된 기업에는 우수기업인상 표창과 함께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대 지원, 해외 전시·박람회 등 참가 시 가산점이 부여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모범근로자 표창에는 산업현장에서 성실히 일하며 안전한 공장 만들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노사관계 안정화 및 공공성 증진 활동을 통한 사회가치 실현에 기여한 ㈜해원메탈 박연희 차장과 함안지방공사 김진영 과장이 수상했다.

한편, 함안군은 기업인과 근로자에 대한 경영의욕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해 2023년부터 격월로 우수기업인 2명과 모범근로자 2명씩, 연 24명을 선정해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최덕수/기자

내년 대구살림, 건전재정·약자보호·미래성장에 방점

대구광역시, 세수 부족으로 IMF 이후 25년 만에 예산 규모 감소

대구광역시는 2024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443억 원(△1.34%) 감소한 10조 5,865억 원을 편성해 대구광역시의회에 제출했다.

대구광역시 예산안이 전년보다 줄어든 경우는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부동산경기 회복 둔화와 내수 부진 영향 등으로 올해보다 지방세 2,940억 원이 감소하고, 내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 181억 원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초유의 세수 부족 사태 등 어려운 재정상황 속에서도 대구광역시는 시민 세금을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적재적소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입하기 위해 '예산편성 3대 원칙'을 세워 어려움을 돌파하는데 총력을 다했다.

2024년도 예산편성 3대 원칙

첫째, 지방채 발행 없는 확고한 건전재정 기조 유지

세수 부족에 따른 내년도 예산편성의 어려움은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겪고 있으며, 이를 가장 손쉽게 타개하는 방안은 지방채를 신규로 발행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에 긍정적이다.

하지만, 대구광역시는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고, 지방재정 운용 원칙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건전재정 기조를 반드시 지킨다는 확고한 대원칙 아래 역대 최초로 2년 연속 지방채 발행 없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속된 이러한 건전재정 원칙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되는 만큼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어려운 경제·재정 상황 속 약자 복지 강화

대구광역시는 경제와 재정 상황이 어려울수록 취약계층과 약자 보호는 더욱 절실하다는 판단으로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내년도 복지예산은 오히려 10% 이상 늘렸다.

역대 최고 수준의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 대폭 확대, 대구의료원 등 공공의료 인프라 보강 등 촘촘하고 든든한 사회공동체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노력했다.

셋째,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 또 검토, 강력한 지출구조 조정으로 미래 新 성장동력 재원 확보

대구광역시는 보조사업뿐 아니라 일반재량사업 등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 놓고 성과평가 등을 통해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고 유사·중복사업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추진했다.

또한, 선심성, 현금성 지원사업은 전면 재검토하고, 민간 보조금은 20% 이상 감축하는 등 고강도 재정 다이어트와 예산 체질 개선으로 부족한 재원을 마련해 대구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될 핵심 사업에 재투자한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켰다.

2024년 중점 투자 5대 핵심 분야

먼저, 쇠락을 거듭해 온 대구가 힘차게 일어나 전국 3대 도시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도록 TK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 ABB(AI·블록체인·빅데이터) 등 미래 신산업 육성과 산업구조 재편, 금호강 르네상스 등 핵심 사업 추진에 총 2,708억 원을 투자한다.

둘째, 대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자유가 넘치는 매력 있는 투자 도시로의 면모를 더욱 강화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총 3,453억 원을 투입한다.

셋째, 약자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고, 역대 최고 수준의 노인 일자리 제공과 사회활동 보장 등 촘촘하고 든든한 안전망으로서의 공동체 기능 강화를 위해 총 4조 256억 원을 투자한다.

넷째, 군위 편입으로 확장된 도시 규모와 지역 간 균형발전 수요를 반영한 기반시설 조성, 시민 편의시설 확충에 총 8,527억 원을 투자한다.

끝으로, 대구마라톤과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국제 스포츠 도시로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총 2,845억 원을 투자한다.

5대 핵심 분야별 주요 사업 편성안

1. TK신공항, 미래 신산업, 금호강 르네상스 등 핵심 사업에 집중 투자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이전부지 주변 지역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에 7억 원을 편성하고, 군 공항 미군시설 이전 7공군 지원 운영비 42억 원을 반영하는 등 TK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82억 원을 편성했다.

지난 8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조성부지 매입을 위해 50억 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AI기반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 40억 원, ABB 성장펀드 조성 30억 원, UAM 산업기반 구축 지원 7억 원 등 5대 미래 신산업 육성과 산업구조 재편을 위해 2,117억 원을 반영했다.

디아크 문화관 주변 보행교 설치 등 새로운 경관 명소 조성을 위한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40억 원과 금호강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23억 원, 신천둔치 고정식 물놀이장 조성 40억 원과 푸른 신천숲 조성 14억 원 등 금호강 르네상스 추진 및 글로벌 수변도시 조성을 위해 485억 원을 편성했으며,

도심 공간구조 개편으로 동성로 일대를 관광 자원화하는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에 24억 원을 편성하는 등 대구 미래 50년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한다.

2. 투자유치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투자하기 좋은 도시로 한 걸음 더 도약을 위해 국내 복귀 기업 보조금 428억 원과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46억 원을 지원하고,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179억 원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21억 원을 편성하는 등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전반의 활력 제고를 위해 총 3,453억 원을 편성했다.

3. 더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33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465억 원을 편성해 초저출산 및 고령사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구의료원 기능보강 및 전문인력보강 146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1,526억 원, 부모급여 1,618억 원 지급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과 약자 복지 강화를 위해 3조 9,920억 원을 편성했다.

세수 부족으로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복지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10% 이상 증액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사회적 책임과 돌봄 기능 강화에 노력했으며,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91억 원 등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대구 만들기'에 337억 원을 편성했다.

4. 지역 균형발전 수요를 반영한 도로·교통망 및 시민 편의시설 확충

상화로 입체화 사업 375억 원, 안심~하양 복선전철 397억 원, 다사~왜관 광역도로 240억 원, 도시철도 4호선 건설 200억 원 등 도시 규모 확대 및 균형발전 수요를 반영한 도로·교통망 확충과

대구대표도서관 건립 132억 원, 장애인 희망드림센터 건설 47억 원, 공영주차장 조성 105억 원 등 시민 편의시설 조성,

군위 동부리~용대리 도로 건설 28억 원, 팔공산터널로 관리 4억 원 등 군위 편입으로 확장된 도시 발전축 완성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조성에 총 8,527억 원을 편성했다.

5. 국제 스포츠 및 문화·관광도시로의 위상 강화

2024 대구마라톤 대회 개최 지원 18억 원,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 지원 6억 원, 수상레저시설 조성 23억 원, 파크골프장 조성 21억 원 등 명품 스포츠도시 육성과

통합문화이용권 199억 원,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에 따른 동화사 등 주변 문화시설 환경정비 155억 원, 2024 치맥페스티벌 개최 지원 14억 원 등 문화·관광도시로의 위상 강화를 위해 총 2,84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2024년 예산안 의회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은 대구 재건과 미래 50년 번영, 민생경제 회복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심혈을 기울여 편성했다"면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단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북교육청, 유학생 인(IN)경북, '경북인(人)'만든다

직업계고 해외 우수 유학생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위한 방안 모색

경북교육청은 6일 월요일 본청 회의실에서 2024학년도 직업계고 해외 우수 유학생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위해 해당 학교장과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교육부터 지역 산업에 필요한 전문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경북교육청이 해외 우수 유학생을 유치하고 국내 정착까지 유도하려는 것은 저출생으로 인한 지방 소멸과 노동력 부족 등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해외 우수 청소년기 학생의 국내 유학은 국내 정착이 쉬울 뿐 아니라 우리 기업에 필요한 노동력도 제공할 기회가 더욱 크다.

특히 구인난을 겪는 지역 기업은 경북 직업계고의 우수한 기술교육을 습득하고 이중언어가 가능한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기술 인재를 채용할 수 있다.

2024학년도 경상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에서 한국해양마이스터고 외 7개 직업계 고등학교는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몽골 4개국 49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선발했다.

회의에 참석한 박기환 의성유니텍고등학교장은 "지난주 본교를 방문한 태국 교육부와 학교 관계자는 경북의 직업교육 시스템에 만족하며 사업이 지속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자고 당부했다"라고 말하며 "경북교육청의 시의적절한 전략적 접근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환대받음을 몸소 체험했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인구감소 위기에서 다문화 인력은 노동력을 보강해 주는 소중한 인적자원이자 경제의 원동력이 되는 소비 주체이기도 하다. 다인종, 다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 시기에 유학생 입학은 국내 학생들도 외국의 문화를 익힐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학생이 입학 후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경북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글로벌 교육과정과 인프라 구축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유학생의 입학 이후 지원·관리를 위해 취업, 상담, 교육과정, 학생생활지도 전문가와 현장 교사들로 TF팀을 구성해 매뉴얼을 개발하고 있다.

윤근수/기자

봉화교육지원청, 2023년 다[多]함께 메이커 가족캠프 개최

다문화 가족과 일반 가족이 함께 어우러진 소통·공감 역량 강화 캠프 실시

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은 11월 3일부터 11월 4일 1박 2일간 국립청소년미래환경센터에서 2023년 다[多]함께 메이커 가족캠프를 개최했다.

봉화 지역 다문화 학생 가족 구성원 및 취약계층 학생 가족 구성원과 일반 학생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캠프는 다문화 학생 가족 및 취약계층 학생 가족 구성원이 일반 학생 가족 구성원들과 공감대를 넓혀 봉화 관내에서 잘 적응하고 교육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가족캠프에 참여한 봉화 관내 다문화 학생 가족 구성원과 일반 학생 가족 구성원은 총 17가정이었으며, 가족 구성원을 모두 합쳐 총 67명이 참여했다.

봉화교육지원청 양춘희 교육지원과장은 "이번 캠프는 가족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추억뿐만이 아니라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 및 일반 가족 구성원들 간에도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 봉화 관내 학생 및 가족들이 긍정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잘 적응하기를 바란다"고 뜻을 밝혔다.

윤근수/기자

경북교육청, 전국 최초 학교지원종합자료실 인공지능 시스템 구축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해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30일(월) 경기도의회 제1중회의실에서 시내버스와의 임금격차, 근무환경 등 경기도 마을버스 업계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서민기초 교통수단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의왕시 김성제 시장의 '의왕시 마을버스 운영사례'에 대한 특별강연 ▲경기도 마을버스 현안 사항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개회사에서 오준환 의원은 "현재 경기도에 약 3천여대 차량이 운행중인 마을버스는 우리 도민의 이동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대중교통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도 내 시군별 상이한 마을버스 교통정책에 따른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도민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며 "그동안 교통정책에서 소외되어온 마을버스의 표준화된 교통정책 수립 및 경기도 대중교통으로서의 제 역할을 위한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간담회 취지를 설명했다.

특별 강연에서 김성제 의왕시장은 ▲의왕시 시내·마을버스 현황 ▲의왕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의왕시 마을버스 운수업체 건의 사항 ▲마을버스에 대한 경기도 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어진 마을버스 현안 논의 자리에서 경기도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이호원 전무가 경기도 마을버스 기본현황, 마을버스 운전기사 안전수당의 필요성,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요금 현실화, 마을버스 준공영제 용역 추진 및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등과 관련한 사항을 보고하고 참석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등 경기도 마을버스 현안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끝으로 오준환 의원은 "마을버스의 임금격차 해소 및 근무환경 개선은 도민의 교통서비스 향상 및 안전운행 여건 조성을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마을버스 업계 인력 유출방지, 처우개선 등 마을버스 운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안'을 대표발의로 추진중에 있다"며 성원을 부탁하며 정책간담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국민의힘, 광명1),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 김종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4),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 및 이운기 경기도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참석하여 축사 인사로 자리를 빛냈으며,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범상/기자

부산교육청, 중학교 1학년 대상 무료 겨울방학 캠프 운영

13일부터 17일까지 숙박형 영어·수학 캠프 참가자 모집

부산광역시교육청은 내년 1월 8일부터 3주간 중학교 1학년 대상 전액 무료 겨울방학 캠프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캠프는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핵심 사업이다. 중학교 1학년의 방학 중 학습 결손을 해소하고, 몰입형 교육과 학생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 학습할 수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내년 1월 8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캠프를 운영하며, 숙박형 '영어·수학캠프'와 통학형 '위캔두 계절학교' 2개 과정을 운영된다.

숙박형 영어·수학캠프는 중학교 1학년 38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캠프 참가 학생들은 영어·수학 책 1권을 마스터하고, 다양한 예술·체육·공감 활동이 어우러진 인성 함양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또, 부산·경남 일원에서 전일제 현장체험학습에도 나선다.

이 캠프는 우수한 시설을 갖춘 부산지역 5개 대학에서 운영하며, 매주 월요일 입소, 금요일 퇴소하는 형태로 3주간 운영한다.

부산교육청은 부산 지역 저소득·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신청 기회를 우선 제공하며,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 이들 학생을 대상으로 1차 모집을 진행한다.

참가 희망 학생은 ▲유선전화 ▲시교육청 통합예약포털을 통한 개별 신청 ▲자료집계시스템을 활용한 학교 단위 신청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1차 모집 결과 인원이 미충족될 경우에는 원도심·서부산권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선착순 2차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통학형 위캔두 계절학교는 학생들의 국어·영어·수학 교과 마스터를 목표로, 학생 희망하는 과목을 선택해 수강하는 단과형 캠프다. 원도심·서부산권 중학교 1학년 150여 명을 대상으로 영도제일중학교에서 열린다.

부산교육청은 질 높은 캠프를 운영하기 위해 지역의 우수한 현직 교사들로 강사진을 꾸렸고, 이들이 직접 제작한 교재로 강의를 운영한다. 또, 캠프 기간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을 키워줄 별도의 자습실과 휴게실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원도심과 서부산권의 원거리 지역 학생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도 운영하고, 참가 학생 모두에게 중식도 제공한다.

참가 희망자는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시교육청 통합예약포털을 통한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 캠프 역시 원도심·서부산권 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자세한 내용은 11월 20일 이후 부산학력개발원 홈페이지의 '위캔두 계절학교 프로그램 안내' 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이번 겨울방학 캠프는 학력 신장을 위한 학생 맞춤형 교육 기회를 제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며 "캠프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학습 몰입 경험과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게 프로그램 운영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양군 YEONGYANG-GUN
www.yyg.go.kr

영양 들여다보기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ZOOM

들여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아온 영양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_일월산, 선바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신계곡, 침벽공원, 측백수림, 외씨버선길
- 영양의 역사_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검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_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생화공원, 영양풍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양양산촌생활박물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ida INTERNATIONAL DARK-SKY ASSOCIATION cittaslow KOREA eco 생태관광지역

거창군수, 간부공무원 피소에 따른 대군민 사과 담화문 발표

피해당사자·기관에 사과, 간부공무원 2명 직위해제

구인모 거창군수는 최근 간부공무원이 사회적 물의를 빚은데 대하여 기자회견을 갖고 군민 등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구인모 군수는 담화문에서 사건 발생 경위, 대군민 사과, 거창군 조치사항,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해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 10월 31일 거창한마당대축제에 치안업무로 고생한 거창경찰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만찬 자리에서 발생했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11월 3일 부군수 주재로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였으며, 11월 4일에는 군수 주재로 부서장, 주무담당계장, 부읍·면장 등 80여 명의 관리자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특별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거창군은 관련된 간부공무원 2명에 대해 11월 6일자로 직위해제 처분하였으며, 앞으로 경상남도경찰청 수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거창군은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 4대폭력 행위자 무관용 원칙 적용 ▲공직자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성 관련 가치관·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강화 ▲성 관련 범죄 예방 특별대책 수립 및 지속적인 점검 ▲공직자 복무기강 확립 등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방침이다.

구인모 군수는 "누구보다 모범이 되어야 할 간부공무원의 이러한 행위로 거창군의 명예가 실추되고,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관계 기관에 피해를 끼쳐드려 사과드린다"며, "군수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거창군 공무원과 관련된 일이라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800여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군수의 책임이다. 모두 저의 불찰이다. 제가 대신하여 사죄드린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은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고, 진상 파악을 위해 수사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하였으며, "피해를 입은 분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장병철/기자

영양군보건소,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 실태 점검 실시

영양군보건소는 11월 6일부터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등 의무설치기관을 중점으로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의무설치기관은 공공보건의료기관, 119구급대 및 의료기관에서 운용중인 구급차,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다중이용시설 등이며 관내 자동심장충격기는 비의무설치기관을 포함하여 71개 기관에 85대가 설치돼 있다.

점검내용은 AED 설치 현황, 관리책임자 지정 및 교육 이수 여부, 매월 점검일지와 장비 정상 작동 여부 등이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 교육을 통해 시정 조치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장여진 영양군보건소장은 "자동심장충격기의 지속적인 실태점검과 주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AED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서귀포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장 주변 공사장 특별점검

서귀포시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장 주변 소음방지를 위해 "관내 시험장 4개소 인근 건축공사장 등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서귀포시 관내 4개 시험장(서귀포고, 남주고, 서귀포여고, 삼성여고) 반경 1km 이내에 위치한 건축공사장 등 17개소에 대해 수능 시행일 당일 소음 유발 장비(브레이커, 굴삭기 등) 사용 자제 요청하고 영어 영역 듣기 평가 시간 내 소음이 발생되는 공사 자제 사전 안내하여 수능 당일 안정적 시험 시행을 위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수능 당일에는 시험장 주변 공사장을 수시 순찰하고 특히 영어 영역 듣기 평가 시간(13:10 ~ 13:35)에는 소음 발생원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수능 당일 시험장 주변에서 소음 발생 시 서귀포시 기후환경과로 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면 신속히 조치하여 소음으로 인한 수험생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소음 발생원을 사전에 차단하여 수험생들이 조용하고 집중적인 환경에서 시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사장 소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황지원/기자

해남군 "가을철 산불방지 총력"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삼산면 두륜산 도립공원 산불 가정 재난대응 훈련 성료

해남군이 가을철 잦은 산불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삼산면 구림리에서 2023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해남군의 13개 협업기능반을 비롯해 전라남도 임차헬기,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 해남소방서, 해남경찰서, 육군제8539부대제4대대, 한국전력공사, KT해남지사, 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 및 영산강사업단,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자원봉사 등 12개 기관·단체 250여명이 참여했다.

훈련은 원인미상의 산불이 발생해 인접 상가로 번지는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으며 상황접수 및 전파, 인명구조·산불진압, 응급의료 지원, 수습·복구 등 실제 재난상황에서의 모든 절차를 진행하여 재난현장 대응능력을 다시한번 점검했다.

군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산불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재난유형을 산불로 선정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실전과 같은 훈련을 실시했다.

특히 삼산면 구림리 일원은 해남의 대표 관광명소인 두륜산 도립공원과 천년고찰 대흥사가 소재한 곳으로 평소에도 많은 관광객들과 군민들이 찾아 화재 발생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명현관 해남군수는"일상속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비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앞으로도 유관기관·단체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갑문/기자

경상북도의회 GYEONGSANGBUK-DO COUNCIL

김회식 전남도의원 "전남도 산불진화 헬기 노후화 심각"

노후화 임차헬기 선제적 교체 필요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2)은 지난 11월 3일 환경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의 산불진화용 헬기가 노후화되어 선제적 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남도는 22개 시군을 8개 권역으로 나눠 민간 헬기업체 3곳에서 임차한 산불진화용 헬기 8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들 헬기의 기령은 모두 20년 이상으로 전남도는 매년 약 61억 9000만 원의 임차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김회식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 발생 비율이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산불진화에 필수적인 헬기의 노후화율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산불진화 중 헬기추락 사건이 10건 발생해 16명이 사망했다"며 "항공업계에서는 헬기의 적정 교체 주기를 20~25년으로 보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전남도의 산불진화용 임차헬기 모두 교체 대상인 셈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회식 의원은 "노후화된 헬기는 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지고 정비를 잘해도 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점차적으로 헬기를 교체하고 교체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령에 따라 검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안상현 환경삼림국장은 "산불진화용 헬기의 내부 기계장비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최대한 기령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종배/기자

의 성 군

항공물류중심
공항도시 의성